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2012-17

국내 NIE 현황 조사 연구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2012-17

국내 NIE 현황 조사 연구

연구 기관 | 한국신문협회

책임 연구 |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동 연구 | 정문성(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최상희(경향신문사 차장, 인하대 겸임교수)

연구 보조 | 강은비(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박새롬(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사과정),
연준모(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발행인 | 이성준

편집인 | 선상신

발행일 | 2012년 11월 15일 초판 제1쇄 발행

한국언론진흥재단

100-75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전화 (02)2001-7744 팩스 (02)2001-7740

www.kpf.or.kr

이 보고서는 2012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연구결과임을 밝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비매품

국내 NIE 현황 조사 연구

연구 기관 | 한국신문협회
책임 연구 |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동 연구 | 정문성(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최상희(경향신문사 차장, 인하대 겸임교수)
연구 보조 | 강은비(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박새롬(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사과정)
연준모(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본문 목차

I. 서론	17
1.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17
2. 연구목적	27
3. 연구체계 및 연구방법	28
4. 연구내용	31
II. 신문사 NIE 현황	34
1. 신문사 NIE 현황	34
2. 신문사 NIE 담당자 설문조사 분석	36
3. 신문사 NIE 담당자 면접조사결과	51
4. 분석결과 요약 및 제언	63
III.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NIE 현황	68
1.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NIE 현황	68
2.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NIE 담당자 설문조사 분석	70
3. 분석결과 요약 및 제언	88
IV. NIE 거점학교 현황	92
1. NIE 거점학교 현황	92
2. NIE 거점학교 담당자 설문조사 분석	94
3. 분석결과 요약 및 제언	110

V. 학교 외 기관 및 단체	115
1. 사회교육기관 NIE 현황조사	115
2. 사회교육기관 NIE 현황분석.....	117
 VI. 결론 및 제언	126
1. 신문사	127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129
3. 학교	130
4. 사회교육기관	131
 참고문헌.....	133
 부록1	135
 부록2	165

표 목차

<표 I-1> NIE의 시대적 변천과정	18
<표 II-1> NIE 설문조사에 응답한 신문사	34
<표 II-2> 설문조사의 내용	35
<표 II-3> NIE 관련 운영 분야	36
<표 II-4> 발행지면 형태	37
<표 II-5> NIE 지면 구성 및 기사 작성할 때 의사결정 주체	37
<표 II-6> 담당 기자 수	38
<표 II-7> 담당 기자 소속	38
<표 II-8> 외부 집필진 수	38
<표 II-9> 외부 필진에게 원고료 지급 여부	39
<표 II-10> 지면 제작 형태	39
<표 II-11> NIE 예산 확보	40
<표 II-12> 운용 형태	40
<표 II-13> 지면과 연계	41
<표 II-14> 다루는 주제	41
<표 II-15> 독자 대상	42
<표 II-16> 강좌 운영 형태.....	43
<표 II-17> 강좌의 단계	43
<표 II-18> 강좌의 대상	44
<표 II-19> 이수 후 결과	44
<표 II-20> NIE 관련 발행물 유형	45
<표 II-21> 발행주기	45
<표 II-22> 대상 독자	46
<표 II-23> 체험 프로그램의 유형	46
<표 II-24> 체험 프로그램 대상	47
<표 II-25> 배부 대상	47
<표 II-26> 전달 방법	48
<표 II-27> 신문사별 지원 부수	49
<표 II-28> 구독료 여부	49
<표 II-29> 신문사별 행사와 NIE 사업 수 및 참가비	50
<표 II-30> 행사와 사업의 대상	51
<표 II-31> 신문사 내부 및 외부의 반응에 대한 답변	53

<표 II-32> 강점(특화)이나 장점에 대한 답변	54
<표 II-33> 단점이나 방해요소에 대한 답변	56
<표 II-34> NIE가 신문경영에 주는 효과에 대한 답변	57
<표 II-35> NIE 담당자의 재교육 또는 연수 필요성에 대한 답변	59
<표 II-36> NIE 담당자의 업무 비중에 대한 답변	60
<표 II-37> 신문사 간 정보교류에 대한 답변	61
<표 II-38> 향후 NIE의 방향에 대한 답변	63
<표 III-1> 설문 응답률 및 설문에 응답한 교육청	68
<표 III-2> 질문지 내용 구성	70
<표 III-3> 시·도교육청 NIE 관련 업무 시행 기간	70
<표 III-4> 교육지원청 NIE 관련 업무 시행 기간	70
<표 III-5> 전체교육청 NIE 관련 업무 시행 기간	71
<표 III-6> 시·도교육청 NIE 담당 부서 유무	71
<표 III-7> 교육지원청 NIE 담당 부서 유무	71
<표 III-8> 전체 교육청 NIE 담당 부서 유무	71
<표 III-9> 시·도교육청 NIE 담당 부서 분포	72
<표 III-10> 교육지원청 NIE 담당 부서 분포	72
<표 III-11> 전체 교육청 NIE 담당 부서 분포	72
<표 III-12> 시·도교육청 NIE 관련 배너 및 홈페이지 유무	73
<표 III-13> 교육지원청 NIE 관련 배너 및 홈페이지 유무	73
<표 III-14> 전체 교육청 NIE 관련 배너 및 홈페이지 유무	73
<표 III-15> 시·도교육청 예산 유무	74
<표 III-16> 교육지원청 예산 유무	74
<표 III-17> 전체교육청 예산 유무 및 액수 분포	74
<표 III-18> 교육청 간 예산 평균	75
<표 III-19> 시·도교육청 교류협력기관 유무	75
<표 III-20> 교육지원청 교류협력기관 유무	75
<표 III-21> 전체 교육청 교류협력기관 유무	76
<표 III-22> 시·도교육청 공문발송 여부 및 횟수 분포	76
<표 III-23> 교육지원청 공문발송 여부 및 횟수 분포	76
<표 III-24> 전체 교육청 공문발송 여부 및 횟수 분포	77
<표 III-25> 시·도교육청 연구학교 분포	77
<표 III-26> 교육지원청 연구학교 분포	78
<표 III-27> 전체 교육청 연구학교 분포	78
<표 III-28> 전체 교육청 연구학교 평균	78
<표 III-29> 시·도교육청 시범학교 분포	78

<표 III-30> 교육지원청 시범학교 분포	79
<표 III-31> 전체 교육청 시범학교 분포	79
<표 III-32> 전체 교육청 시범학교 평균	79
<표 III-33> 시·도교육청 NIE 관련 연수과정 실시 여부	79
<표 III-34> 교육지원청 NIE 관련 연수과정 실시 여부	80
<표 III-35> 전체 교육청 NIE 관련 연수과정 실시 여부	80
<표 III-36> 전체 교육청 NIE 관련 연수과정 실시 횟수 평균	80
<표 III-37> 시·도교육청 관련 행사 및 세미나 실시 여부	80
<표 III-38> 교육지원청 관련 행사 및 세미나 실시 여부	81
<표 III-39> 전체 교육청 관련 행사 및 세미나 분포	81
<표 III-40> 전체 교육청 관련 행사 및 세미나 실시 횟수 평균	81
<표 III-41> 시·도교육청 NIE 관련 교재 발행 여부	81
<표 III-42> 교육지원청 NIE 관련 교재 발행 여부	81
<표 III-43> 전체 교육청 NIE 관련 교재 발행 여부	82
<표 III-44> 전체 교육청 NIE 관련 교재 발행 횟수 평균	82
<표 III-45> 시·도교육청 NIE 관련 학생 대상 행사 여부	82
<표 III-46> 교육지원청 NIE 관련 학생 대상 행사 여부	82
<표 III-47> 전체 교육청 NIE 관련 학생 대상 행사 여부	83
<표 III-48> 전체 교육청 NIE 관련 학생 대상 행사 평균 횟수	83
<표 III-49> 시·도교육청 NIE 관련 행사 홍보 유형	83
<표 III-50> 교육지원청 NIE 관련 행사 홍보 유형	84
<표 III-51> 전체 교육청 NIE 관련 행사 홍보 유형	84
<표 III-52> 시·도교육청 NIE 관련 교사 연구회 분포	85
<표 III-53> 교육지원청 NIE 관련 교사 연구회 분포	85
<표 III-54> 전체 교육청 NIE 관련 교사 연구회 분포	85
<표 III-55> 전체 교육청 NIE 관련 교사 연구회 평균 개수	85
<표 III-56> 시·도교육청 평가 유형 분포	86
<표 III-57> 교육지원청 평가 유형 분포	86
<표 III-58> 전체 교육청 분포	86
<표 III-59> 시·도교육청 NIE 관련 어려운 점	87
<표 III-60> 교육지원청 NIE 관련 어려운 점	87
<표 III-61> 전체 교육청 NIE 관련 어려운 점	88
<표 IV-1> 설문 응답률 및 설문에 응답한 NIE 거점학교	92
<표 IV-2> 질문지 내용 구성	93
<표 IV-3> 평균 교원 수	94
<표 IV-4> 초등학교 학년별 주당 시수	94

<표 IV-5> 중학교 학년별 주당 시수	95
<표 IV-6> 고등학교 학년별 주당 시수	95
<표 IV-7> NIE 연수 수강 교원	96
<표 IV-8>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수업 교원 유무	96
<표 IV-9> 전체 거점학교 NIE 수업 교원 유무	96
<표 IV-10> 초, 중, 고, 특수학교 종합일간지 구독 여부	97
<표 IV-11> 전체 거점학교 종합일간지 구독 여부	97
<표 IV-12> 어린이 신문구독여부	98
<표 IV-13>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담당업무 유형	98
<표 IV-14> 전체 거점학교 NIE 담당업무 유형	99
<표 IV-15>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예산 유무	99
<표 IV-16> 전체 거점학교 NIE 예산 유무	99
<표 IV-17> NIE 예산 범위	100
<표 IV-18>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예산 지원	100
<표 IV-19> 전체 거점학교 NIE 예산 지원	101
<표 IV-20> 초, 중, 고, 특수학교 방과 후 NIE 활동 개설 여부	101
<표 IV-21> 전체 거점학교 방과 후 NIE 활동 개설 여부	101
<표 IV-22> 초, 중, 고, 특수학교 방과 후 NIE 활동 강사	102
<표 IV-23> 전체 거점학교 방과 후 NIE 활동 강사	102
<표 IV-24> 초등학교 NIE 할당 학년	103
<표 IV-25> 중학교 NIE 할당 학년	103
<표 IV-26> 고등학교 NIE 할당 학년	104
<표 IV-27>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실시 시간	105
<표 IV-28> 전체 거점학교 NIE 실시 시간	105
<표 IV-29>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신문 준비	106
<표 IV-30> 전체 거점학교 NIE 신문 준비	106
<표 IV-31>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교사조직 유무	107
<표 IV-32> 전체 거점학교 NIE 교사조직 유무	107
<표 IV-33>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평가방법	108
<표 IV-34> 전체 거점학교 NIE 평가방법	109
<표 IV-35>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운영 시 어려운 점	110
<표 IV-36> 전체 거점학교 NIE 운영 시 어려운 점	110
<표 V-1> NIE 지도사 자격 프로그램 내용의 필수 구성 요소	121
<표 V-2> 대구시 동구 ◇◇주민센터 NIE 지도사 시험 강좌 홍보자료	121

그림 목차

<그림 1-1> 한국형 NIE의 개념도	23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	29

요 약 문

이 연구는 NIE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보다 짜임새 있는 NIE 교육 및 지원 체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과거에 주로 이루어져 왔던 제한된 지역성, 교사와 학생 개개인의 NIE 경험 위주의 미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전국을 단위로 하여 NIE 자료 제공자로서의 ‘신문사’, 교육 행정 및 관리 기관으로서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마지막으로 학교 밖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는 4가지의 주체들을 분석대상으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NIE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 및 이를 토대로 한 각 기관별 제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신문사 대상 조사결과, 현재 신문사는 NIE 지면을 담당기자 없이 외부 집필진에게 맡겨 운영하거나, 콘텐츠 제작 및 결정을 외부 집필진에게 의존하는 신문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신문사에서는 신문사별 NIE의 특징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외부 집필진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NIE 전담 기자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은 물론 신문독자의 교육적 욕구 증대 등 교재로서의 신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NIE 담당자를 위한 재교육 또는 연수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신문사뿐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한국신문협회의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신문 콘텐츠의 저작권은 보호 받아야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콘텐츠 제작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NIE 제작에 있어서 다른 매체에 나온 신문자료를 비교, 대조, 예시 등의 방법을 통해 활용하기 어려워 콘텐츠 제작의 다양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콘텐츠의 확대를 위해서는 NIE를 위한 ‘교재용 신문자료’에 한해 저작권법 적용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위하여 NIE 콘텐츠뿐만 아니라 신문사 간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통해 NIE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NIE 프로그램의 업무협조 또는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결과, NIE 강좌 대상이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편중되어 있고 유아 및 대학생이나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초·중·고교생 집중되어 있는 NIE 대상을 유아 및 대학생 그리고 교수자 그룹으로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계열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NIE 관련 교육청 대상 조사결과에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수년에 걸쳐 NIE 관련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NIE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업무 지원, 그리고 업무의 효과적인 할당에 있어서는 교육청 내 혹은 교육청간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청 내의 과중한 업무 또한 NIE 관련 지원 업무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담당 인력의 보강을 통하여 효과적인 NIE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배너 등을 활용한 NIE 교육과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NIE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교육청에서 예산 부족을 NIE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었고, 교육청 별로 예산의 차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 증액을 통한 NIE 지원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각 교육청에서는 NIE 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학교를 NIE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로 지정한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에서는 NIE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내실화 있는 NIE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는 한편,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NIE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NIE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NIE 관련 연수나 행사, 교재 발행은 물론 NIE 교사 연구회의 조직 및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

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행사나 연수 후의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질 관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대상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NIE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NIE 연수를 수강한 교사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NIE 연수를 활성화시켜 교사들이 NIE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NIE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 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식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NIE 담당업무가 NIE 실시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타 홍보나 행사 개최, 연수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NIE 담당업무 영역을 다양화시키는 한편 외부 NIE 강사와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NIE 운영에 있어서는 수시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교사 NIE 연구모임을 통해 NIE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NIE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내고 학습의 효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NIE 지원 예산의 경우, NIE 관련 재단 또는 협회에서 지원받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NIE의 예산 책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산 지원 출처를 다양화함으로써 NIE 예산 집행 의존도를 개선하고, NIE 운영의 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교육기관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NIE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학생에게는 학습력 신장의 기회를, 교사에게는 수업방법 개선 및 발전의 기회를, 지역주민에게는 직업교육의 기회를 각각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교육 프로그램은 수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예산 마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교육기관에서는 NIE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기관 자체에서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지역적 네트워크 형성도 부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NIE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NIE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 노하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교육기관은 NIE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만큼, 다른 NIE 전문기관에 비해 프로그램의 자체를 해당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해당 강좌의 강사에게 위임해 버리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수강생이 만족하면 프로그램의 본래 목표를 달성했다는 식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NIE 프로그램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전문화된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2012 NIE 현황 조사 연구’는 무엇보다도 NIE 운용주체별로 NIE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현 운영 실태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NIE 관련 운영주체가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신문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운영주체간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1) 국내외 현황 및 동향

NIE는 ‘Newspaper In Education’의 약자로,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교재로 활용해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즉 NIE란 학교수업(학습)에 우리 사회의 모습,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문을 교수매체로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의 제고를 위한 교수법이자, 새로운 신문과 교육의 동반자적 신(新)산학협동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최상희, 1998).

오늘날 학생들은 자유롭게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살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 사고의 틀을 가지며, 개방적이고 열린 교육의 틀을 요구하고 있다. NIE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수동적인 지식 습득에 길들여져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정보습득에 대한 즐거움을 주고, 통합 교과 적용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성태모, 2003).

NIE의 목적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교양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비판적인 읽기 능력을 키우는데 있다. 즉 신문기사를 활용해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길러주고, 이에 더하여 신문 제작 과정을 공부함으로써 정보가 전달 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고, 정보들을 어떻게 취사선택해야 하는지 익히는 데에도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임미영, 2008).

실제로 세계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제 7회 세계 NIE 대회에 73개국 400

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신문활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세계 74개국이 NIE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힐 만큼 NIE는 이미 유익하고 유용한 교육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중앙일보, 2007).

미국은 현재 전국 1500개 신문사 가운데 950개사가 NIE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를 합쳐 39만개의 학급에서 NIE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NIE를 실시하는 학교가 542개교에 달하고 있다(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 2011). 그 외에도 최근 참신한 교육제도로 주목받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 신문협회의 의뢰에 따라 미디어 전문가나 경험 많은 교육학자들에 의해 NIE 지침서가 저술되었고, 학년별 교재개발로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고 소정의 NIE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크로커다일 패스포트’, ‘프로그램 패스포트’ 등의 이름을 붙인 수료증을 수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5월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교육에 NIE 도입을 건의한 이래 한국의 NIE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왔다. 2012년 초를 기준으로 NIE를 직·간접적으로 실천하는 신문사는 33개에 이르며(한국신문협회, 2012), 웹을 통하여 독자적인 NIE 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론기관은 17개에 달한다(이철우, 문종대, 안차수, 2010).

〈표 1-1〉 NIE의 시대적 변천과정

구분	태동기(20세기 중반)	발전기(20세기 후반)	도약기(21세기 초)
교육 대상	학생중심	학생, 교사, 일반인(주로 학부모)	학생, 교사, 예비교사, 일반인, 교육관련 지도자
교육 목표	학습, 입시 대비	열린 교육에 부응 수동적인 정보 활용 교육	삶의 일부로 신문을 활용 능동적인 정보 활용 교육
교육 내용	교과 내용 토대 문제 풀이	신문과 교육과정 연계 신문의 역할 등 개략적 이해	주제중심 통합학습 신문의 역할 등 비판적 참여
교육 매체	신문(특정 지면 또는 부록)	신문, 책, 인터넷 (소극적 사용)	신문, 책, 전단지, 인터넷, TV, 비디오 등의 독립 또는 적극적인 결합

교육 방식	문제풀이 식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교사(지도자) 중심 일방향 커뮤니케이션(학습자와 부분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교사(지도자)-학습자-학부모 의 다(多)방향 커뮤니케이션
교육 공간	개별, 가정	학교, 가정, 사회단체	학교, 가정, 사회단체, 동아리, 인터넷 공간 등
교육 기간	신문에서 제시한 시간 (한시성)	단기간, 일회성, 이벤트성	중·장기간, 누적적, 체계적
관련 학문 또는 영역	교육과정(교과서)	교육학(교육방법 및 공학, 지도법, 교육실습), 소극적 매스커뮤니케이션(미디어 교육, 제작실습 등), 언어교육, 인성교육 등	교육학(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 교과교육론, 지도법, 교육실습), 적극적 매스커뮤니케이션 (미디어교육, 제작실습, 미디어 분석·비판·행동· 실천 등), 언어교육, 인성교육, 시민교육, 사회교육 등

출처: 최상희(2003). NIE의 이해와 활용. 커뮤니케이션북스.

〈표 I-1〉에서 제시되었듯이, 우리나라에서 NIE는 초기에 교실에서 신문을 읽는 것으로 한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점차 다양한 교과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교육이론을 접목하고 적극적인 매스커뮤니케이션으로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사(지도자) 중심의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에서 교사(지도자)-학습자-학부모의 다(多)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NIE가 실시되는 공간도 학교, 가정, 사회단체를 넘어서 인터넷 공간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학교에서의 NIE의 활용방법은 교과중심 NIE 프로그램과 주제중심 NIE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교과중심 NIE 프로그램은 현행 교육과정을 토대로 NIE를 수행하는 방법으로써 교사들이 교과의 진도와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신문의 요소를 소재로 활용하는 방식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반면, 주제중심 NIE 프로그램은 고정된 교과내용으로부터 벗어나 신문이 가진 시사성, 최신성의 장점을 살려 개념 및 주제를 다룰 때 NIE를 활용하는 방법이다(최상희, 2003). 이처럼 NIE는 교과 교육

은 물론 세상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2) 본 과제의 수행 필요성

(1) 교육현장에서 NIE의 활성화를 위한 경험적 자료 제공

최근 NIE 도입 19년째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NIE는 신문업계와 교육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04년 한국신문협회가 실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중등 교원 2244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NIE 실태조사>에서 NIE를 안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83.2%, NIE를 수업에 활용한 적이 있는 교사는 60.3%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수치상 NIE의 양적 확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정문성, 2004). 그러나 그들 중 NIE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은 56%, NIE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가 나왔고, 이를 전체 응답 교사로 환산해보면, NIE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는 약 34%, NIE를 해보지 않았거나 해보았지만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교사의 비율이 약 66%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05년 한국신문협회에 의해 실시된 <학생 NIE 실태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신문 구독 실태, NIE에 대한 개념적 인지, NIE 행태에 대한 일반사항, 가정 및 학교, 학교 밖에서의 NIE 실태, NIE의 장애요인과 장점, 학생이 인지하는 NIE의 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NIE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38.9%)가 교사들(83.2%, 한국신문협회, 2004)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과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 신문을 활용하는 학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IE가 사회과 교과에 치중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급사고 증진을 위한 활동보다는 단순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201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주최로 신문 NIE 지면 및 보도 분석,

온라인 NIE의 현황과 활용, 오프라인 NIE 활동 분석, NIE 관련 연구논문 및 NIE 단행본을 분석한 <한국 NIE 실태 분석>이 실시되었고, <어린이신문, 잡지 이용실태> 연구에서는 교사,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NIE 실태와 효과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NIE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NIE의 활성화를 위한 신문사, 교육계, 가정의 노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신문업계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교육계의 신문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NIE 교사용 지도서, NIE 교수-학습활동, NIE 평가, NIE 연수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행사를 개최해 NIE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NIE가 학교교육에 확산되고 보급된 것에 비하면 NIE에 대한 연구의 양과 질은 빈약한 편인데 그 이유 중 하나로 NIE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미흡했던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자기주도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조되면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학습자원으로써 신문활용교육(NIE)에 대한 교육적, 정책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나 신문활용교육의 체계적 운용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한국신문협회,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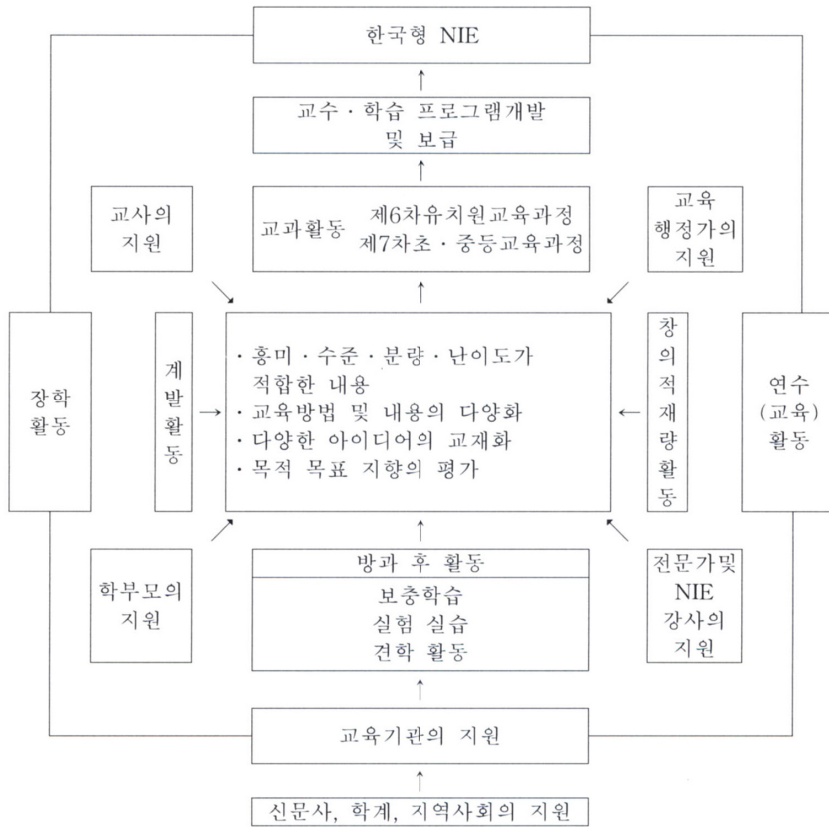
최선열(1995)은 미국 NIE의 성공요인을 신문과 교육의 성숙한 동반자적 제휴관계에서 찾으면서, 신문관계자들이 NIE를 신문사의 관점에서 보는 오류에서 벗어나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NIE에 대한 교육현장의 실태조사와 교사 및 학생들의 요구조사는 NIE의 실재를 반영하는 일이자, 프로그램 개발 후 실행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과정이다(오인경, 최정임, 2005).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상과 이론의 누적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분야의 학문적 지식이 순환적으로 쌓여가는 것을 고려할 때, NIE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NIE에 대한 정확한 기초적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들이 누적되어 이론을 형성하며, 나아가 NIE 연구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1932년 뉴욕타임스가 교실에 신문을 배포하면서 최초의 NIE 교육을 시작한 이후로, 약 80년이 흐른 현재까지 다양한 매체의 등장 및 교육의 주안점이 변화하면서 NIE 연구의 방향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은 디지털 매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NIE의 실효성과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이처럼 시대성을 반영한 NIE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근까지의 세계적인 연구 경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NIE의 체계적 운용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그 동안의 NIE의 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NIE가 도입된 이후로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적 목적이 점차 강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최상희(2003)는 <그림 I-1>과 같이 한국형 NIE의 개념도를 정리하였는데, 그는 NIE를 살아있는 교과서인 신문을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여 정보화 능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미래형 교육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출처: 최상희(2003). NIE의 이해와 활용. 커뮤니케이션북스.

〈그림 1-1〉 한국형 NIE의 개념도

한국형 NIE의 개념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의 6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상희, 2009).

- 신문에서(신문을 두고) 교육적인 요소를 찾아 학습하는 경우
- 신문과(신문을 가지고) 친근해지기 위해 신문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거나 공작활동을 하는 경우
- 신문처럼(신문을 보고) 개별 또는 모둠이 신문을 만들어보는 경우
- 신문으로(신문을 읽고) 읽기, 쓰기, 즉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우

- 신문 속에(신문을 통해) 다루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경우
- 신문마다(신문에서 찾은) 고유한 특징이나 주장을 분석하여 신문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비판 능력을 배양하는 경우

이처럼 NIE를 둘러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공통점은 신문이라는 교육매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NIE가 사회변화 속도와 정보 지식의 양이 급증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필요한 의사결정력, 정보처리능력 함양에 적합한 교육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구정화, 2011), NIE를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던 움직임이 학교 외 기관(신문사, 지자체 사회교육기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상희(2003)가 제시한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NIE가 운용되는 데에는 분명 학급을 포함한 학교, 학교 외 기관 및 지역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이 전제가 될 때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NIE를 지도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문활용교육의 실태조사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 기관 및 단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근 NIE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강사의 현황과 지원체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행해져 온 NIE 현황 조사 연구(한국신문협회, 2002; 정문성, 2004; 한국신문협회, 2005; 정문성 외, 2006) 등에서는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NIE를 어떠한 규모, 내용,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NIE의 전반적 운용체제 구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NIE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계, 신문사,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신문협회, 2009).

① 학교의 기대효과

- 학생의 사고력을 높인다.

- 학생의 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인다.
-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사회의 능동적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높인다.
- 학교가 그 지역사회에 상황에 직접 관여하게 한다.
- 가정과의 관계를 개선시킨다.
- 미래의 고용주인 지역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한다.

② 신문사의 기대효과

- 장기적인 독자를 확보한다.
- 공공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된다.
- 발행부수를 증가시킨다.
- 특별코너를 통하여 광고수입을 늘리고, NIE를 통한 독자를 확보한다.

③ 지역사회의 기대효과

- 저널리스트, 교육자,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학교와 지방 정부에 대한 시민의 참여 수준을 높인다.
- 학생을 관심 있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키운다.
- 지역사회 구성원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의 주요 자료로써 신문을 인식하게 된다.

NIE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로서 학교와 신문사, 지역사회를 들 수 있지만, NIE의 진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조직 중 하나로 정부기관을 들 수 있다. 그동안에는 NIE의 확장을 위해 신문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자사의 이익적 관점에서 NIE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NIE의 궁극적 목적보다는 논술이나 학습 증진을 위한 내용이나 활동에 치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유홍식, 2011).

따라서, 이제는 신문사보다는 정부정책기관이 NIE의 질적 성장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즉 정부정책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심 있는 신문사들이 통합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1)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기존 연구 현황 및 본 과제의 독창성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NIE에 대한 최초의 기초 실태조사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457명을 대상으로 한 중앙일보(2002)의 'NIE 인지 및 활용 조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조사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조사 규모가 작고, 조사 내용과 도구가 우리나라 NIE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한국신문협회가 200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많은 교사들이 신문활용교육을 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지만, 이러한 학교 NIE 실태가 학생들의 NIE 경험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정문성 외, 2005). 그 후 한국신문협회가 2005년에 후속연구로 학생들의 NIE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신문사의 NIE 현황도 조사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많은 신문사들이 깊이 있는 내용과 다양한 방법으로 NIE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오늘의 현실과는 차이가 많다(정문성 외, 2006). 그 외 NIE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교 외 기관과 단체, 17개 시·도교육청

1) 거버넌스 [governance] :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신공공관리론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와 구별된다. 즉, 'governance'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통치·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하다. 거버넌스는 정부·준 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비영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naver 지식백과).

및 교육지원청 등의 교육기관별 NIE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결국 NIE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한 것은 좀 더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신문을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의도하는 교육적 효과를 효율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연구를 토대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NIE 연구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NIE를 미리 시작했던 서구의 경우에도 보급된 것에 비하면 기초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NIE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NIE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방향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이번 연구는 제한된 지역성, 교사와 학생 개개인의 NIE 경험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전국을 단위로 하여 NIE의 자료 제공자로서의 ‘신문사’, 교육 행정 및 관리기관으로서의 ‘교육청’,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마지막으로 학교 밖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는 4가지의 주체들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NIE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

2. 연구목적

1) 전국 NIE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수집

기존 NIE 조사 연구들은 주로 조사지역이 제한되어 있었고, NIE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교사, 학생 개개인을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로 하여 실시된 바 있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전국을 대상으로 NIE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사, 교육청, 단위학교, 사회교육단체 등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함으로써, NIE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규모 데이터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NIE 교육 및 지원체계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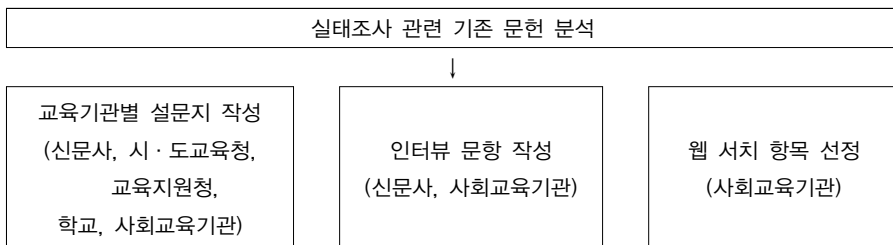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데이터는 전국 규모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NIE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NIE 관련 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에 있어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현황 조사를 통해 NIE 실시 현황 및 NIE 실시를 위한 지원체계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보다 짜임새 있는 NIE 교육 및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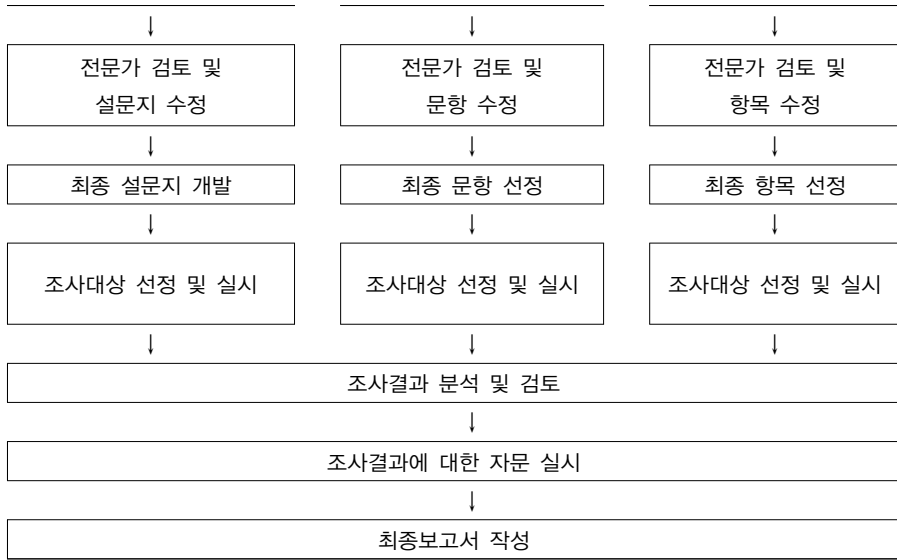
3)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NIE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 제공

마지막으로 과거의 NIE 연구들은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단위학교나 교사, 학생의 개별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제한되고 분절되어 있는 관점에서 벗어나 NIE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NIE 활성화 방안을 탐색해 보고, 더 나아가 보다 역동적인 관계를 지닌 새로운 NIE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체계 및 연구 방법

1) 연구 추진 체계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조사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 문항은 이러한 과거 자료에 의한 조사지표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문헌연구와 관련해서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리고 외국의 언론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한 다양한 NIE 관련 연구물들의 분석이 우선시 되었다.

(2) 설문연구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될 연구방법은 설문지 및 면접조사이다.

① 연구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의 모집단은 개인보다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는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외 NIE 관련 기관, 신문사, 16개 시·도교육청, NIE 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질문지 구성

질문지는 기존 NIE 관련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기관을 대상으로 ‘기본 정보’, ‘투입(input) 변인’, ‘과정(process) 변인’, ‘결과(output) 변인’을 중심 지표로 하여 구성되었다. 이러한 질문지는 NIE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③ 질문지 조사 실시

대규모의 조사이만큼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는 대상자들에 대한 공문, 우편 및 전자우편, 면접, 전문 리서치기관 의뢰 등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질문지가 NIE 전문가에 의하여 검토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 자료에서의 코딩과 분석 역시 통계 분석 전문가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④ 조사결과 분석

수집된 설문지들에 대한 코딩이 이루어진 후 전문가와 참여 연구진이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과 예외 사항들을 고려하였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3) 면접 조사

본 연구의 면접에서는 개별면접과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FGI) 기법을 사용하였다. 면접을 실시한 까닭은 ‘신문사 NIE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없는 심도 있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현직 신문사 NIE 담당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면접조사 내용의 처리는 심층면접 분석법의 하나인 주요 어휘 추출분

석법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법은 참여자의 응답 내용에서 주요 어휘(keyword)를 추출한 후, 목록화한 것을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4. 연구내용

1) 신문사 NIE 현황

- NIE 관련 운영분야
- 발행지면 형태
- NIE 지면 구성 및 기사 작성할 때 의사결정 주체
- 담당 기자 수 및 소속
- 외부 집필진 수 및 원고료 지급 여부
- NIE 지면 제작 형태
- NIE 예산 확보
- 디지털 매체 운용 형태
- 디지털 매체의 지면과 연계
- 디지털 매체가 다루는 주제
- 디지털 매체의 독자 대상
- 신문사 주관 강좌 운영 형태
- 신문사 주관 강좌의 단계
- 신문사 주관 강좌의 대상
- 강좌 이수 후 결과
- NIE 관련 발행물 유형
- NIE 관련 발행물 발행주기
- NIE 관련 발행물 대상 독자
- 신문사 주관 체험 프로그램의 유형
- 신문사 주관 체험 프로그램 대상

- 교육용 신문 배부 대상
- 교육용 신문 전달 방법
- 신문사별 교육용 신문 지원 부수
- 교육용 신문의 구독료 여부
- 신문사별 NIE 행사와 사업 수 및 참가비
- NIE 행사와 사업의 대상

2)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NIE 현황

- 담당 업무 수행 기간
- 담당 부서의 유무 여부 및 담당 부서명
- 교육청 홈페이지의 NIE 관련 배너 및 자료
- NIE 프로그램 관련 예산
- NIE 프로그램 관련 교류 및 협약 기관
- NIE 관련 공문 발송
- NIE 관련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현황
- NIE 관련 연수과정
- NIE 관련 학술행사 및 세미나
- NIE 관련 교재 발행
- NIE 관련 어린이 대상 행사
- NIE 행사 운영과 관련된 홍보 형태
- 교육청 주관 NIE 교사 연구회 현황
- NIE 관련 연수나 행사에 대한 평가 유형
- NIE 업무 운영의 어려운 점

3) 학교 NIE 현황

- NIE 수업 형태 - 교과, 비교과(방과 후 활동)
- 학년별 수업 현황 -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및 비율

- NIE 수업 경험 교사 수 및 비율
- NIE 지속 여부
- NIE 프로그램 예산
- NIE 수업에 이용하는 신문 유형
- NIE 수업용 신문 선택 주체
- NIE 수업 자료 수집 방법
- NIE 관련 교내 행사 - 전시회, 콘테스트, 워크숍, 세미나 등
- 언론단체 및 신문사와 교류, 행사 참여
- 외부 강사 및 기자 초빙 여부
- 교사들의 NIE 연수 경험
- NIE 수업의 평가
- NIE 운영의 어려움

4) 학교 외 기관 및 단체 NIE 현황

- NIE 프로그램 개설 동기
- NIE 프로그램 개설한 학교 외 기관의 유형
- NIE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른 분류법
- NIE 프로그램의 수강 대상
- 연간 NIE 강좌 수
- NIE 수업 자료 수집 방법
- 언론단체 및 신문사와 교류, 행사 참여
- 자체 교재 또는 협력을 통한 교재 개발 여부
- NIE 관련 모임 결성 여부

II. 신문사 NIE 현황

1. 신문사 NIE 현황

1) 설문조사의 대상

2012년 현재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47개사 중 설문응답을 보내온 곳은 24개 신문사이다. 이 가운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한 2개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응답지는 총 22개 신문사이다. 설문에 응한 신문사별 분류는 다음 <표 II-1>와 같다.

<표 II-1> NIE 설문조사에 응답한 신문사

분류	신문명	계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6
지역일간지	강원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일보, 경인일보, 국제일보, 대구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중부매일, 제주일보, 한라일보	12
경제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2
어린이신문	소년한국일보, 어린이강원일보	2
계		22

설문대상은 응답지를 보내온 NIE 기자 또는 NIE 담당자이다. 이들의 근무연수는 NIE 업무를 맡은 지 1년에서 15년까지 다양한 편이다. 이 가운데 5개 신문사 담당자는 ‘5년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3개 신문사 담당자는 ‘10년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2) 설문조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NIE 활동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조사한 범위와 내용을 <표 II-2>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II-2〉 설문조사의 내용

대영역	소영역
신문지면 게재	1) NIE 관련 운영분야 2) 발행지면 형태 3) NIE 지면 구성 및 기사 작성할 때 의사결정 주체 4) 담당 기자 수 및 소속 5) 외부 집필진 수 및 원고료 지급 여부 6) NIE 지면 제작 형태 7) NIE 예산 확보
디지털 매체 운용	1) 운용 형태 2) 지면과 연계 3) 다루는 주제 4) 독자 대상
신문사 주관 강좌 운영	1) 강좌 운영 형태 2) 강좌의 단계 3) 강좌의 대상 4) 이수 후 결과
NIE 관련 발행물 발간	1) NIE 관련 발행물 유형 2) 발행주기 3) 대상 독자
견학 등 체험 프로그램	1) 체험 프로그램의 유형 2) 체험 프로그램 대상
교육용 신문 지원	1) 배부 대상 2) 전달 방법 3) 신문사별 지원 부수 4) 구독료 여부
NIE 사업 또는 학술행사	1) 신문사별 NIE 행사와 사업 수 및 참가비 2) NIE 행사와 사업의 대상

3) 분석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응답지는 22개 신문사의 설문지이다. 그럼에도 설문항목별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일부 신문사가 응답하지 않아, 응답한 신문사만 집계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영역’ 8개 분야에서 응답한 신문사만 집계하였다. 소영역에서도 신문사별로 ‘해당사항’에만 응답한 결과를 통계 처리하였다. 또한 ‘중복 응답’이 가능한 설문항목도 일부 있다. 이에 따라 분석 응답지 총계와 설문 항목별 총계가 차이가 난 것이다.

2. 신문사 NIE 담당자 설문조사 분석

1) ‘신문지면 게재’ 분야

(1) 일반 현황

2010년 기준으로 NIE 관련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신문사는 총 26개로 알려졌다(김기태·이연·허병두·이소현·고은희, 2010).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NIE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신문사는 22개로 나타났다. 이들 신문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신문사들에게 ‘운영하고 있는 분야’를 질문해보니 <표 II-3>과 같이 ‘교육용 신문 지원’과 ‘NIE 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라는 응답이 각각 72.7%(16개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다음 ‘신문지면 게재’(54.5%), ‘NIE 사업 또는 학술행사’(50%), ‘디지털 매체 운용’(45.5%), ‘견학 등 체험 프로그램’(45.5%)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3> NIE 관련 운영분야

순	분야	운영하고 있다	운영하지 않는다	계
1	신문지면 게재	12(54.5%)	10(45.5%)	22(100%)
2	디지털 매체 운용	10(45.5%)	12(54.5%)	22(100%)
3	신문사 주관 강좌 운영	7(31.8%)	15(68.2%)	22(100%)
4	NIE 관련 발행물 발간	6(27.3%)	16(72.7%)	22(100%)
5	견학 등 체험 프로그램	10(45.5%)	12(54.5%)	22(100%)
6	교육용 신문 지원	16(72.7%)	6(27.3%)	22(100%)
7	NIE 사업 또는 학술행사	11(50%)	11(50%)	22(100%)
8	NIE 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	16(72.7%)	6(27.3%)	22(100%)

(2) 발행지면 형태

신문사별로 ‘발행지면 형태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표 II-4>와 같이

‘본지 중 독립적 지면’ (53.8%)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교육 섹션 중 1개 면’ (15.4%)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4〉 발행지면 형태

	사례 수	백분율
1) 본지 중 독립적 지면	7	53.8%
2) 본지 지면에서 일부 코너로 게재	1	7.7%
3) 교육 섹션 중 1개 면	2	15.4%
4) 교육 섹션에서 일부 코너로 게재	1	7.7%
5) 다른 형태	1	7.7%
6) 지면이 없다 (이하 응답 생략)	1	7.7%
계	13	100%

(3) NIE 지면 구성 및 기사 작성할 때 의사결정 주체

신문지면에 NIE 지면을 제작하는 과정을 조사한 결과가 <표 II-5>에 나타나 있다. 신문사별로 ‘NIE 지면 구성 및 기사 작성할 때 의사결정 주체’를 물었더니 ‘담당 기자 결정 후 데스크 승인’ (54.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담당 기자와 외부 필진 협의’ (27.3%)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5〉 NIE 지면 구성 및 기사 작성할 때 의사결정 주체

	사례 수	백분율
1) 담당 기자 단독 결정	1	9.1%
2) 담당 기자 결정 후 데스크 승인	6	54.5%
3) 담당 데스크 결정	1	9.1%
4) 외부 필진 단독 결정	0	0%
5) 담당 기자와 외부 필진 협의	3	27.3%
계	11	100%

(4) 담당 기자 수 및 소속

신문사 내 ‘NIE를 담당하는 기자의 수’를 질문했더니 <표 II-6>처럼 ‘2

명 이상' (50.0%)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1명' (41.7%) 순으로 응답하였다. 'NIE를 담당하는 기자가 없다'는 신문사는 8.3%로 나타났다.

〈표 II-6〉 담당 기자 수

	사례 수	백분율
1) 1명	5	41.7%
2) 2명 이상	6	50.0%
3) 없다	1	8.3%
계	12	100%

또 'NIE 담당기자들의 소속'을 물었더니 〈표 II-7〉처럼 '독립 법인' (50.0%)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 다음 '신문사 본사' (41.7%), '기타' (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7〉 담당 기자 소속

	사례 수	백분율
1) 본사	5	41.7%
2) 독립 법인	6	50.0%
3) 기타	1	8.3%
계	12	100%

(5) 외부 집필진 수 및 원고료 지급 여부

NIE 지면 등에 참여하는 '외부 집필진'을 질문했더니 〈표 II-8〉처럼 '3명 이상' (75.0%)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1명' (16.7%)으로 집계되었다.

〈표 II-8〉 외부 집필진 수

	사례 수	백분율
1) 1명	2	16.7%
2) 2명	0	0%
3) 3명 이상	9	75.0%

4) 기타	1	8.3%
계	12	100%

NIE 지면 등에 참여한 ‘외부 필진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는지’를 물었더니 <표 II-9>처럼 ‘지급한다’ (60%)와 ‘지급 안 한다’ (40%)라고 응답하였다.

<표 II-9> 외부 필진에게 원고료 지급 여부

	사례 수	백분율
1) 한다	6	60%
2) 안 한다	4	40%
계	10	100%

(6) NIE 지면 제작 형태

‘NIE 지면을 어떤 형태로 제작(운영)하는지’를 질문했더니 <표 II-10>처럼 ‘담당기자와 외부 필진의 분담’ (58.3%) 형태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다. 이어 ‘담당기자 독자 운영’ (25.0%), ‘외부 필진 의뢰 제작’ (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0> 지면 제작 형태

	사례 수	백분율
1) 담당기자 독자 운영	3	25.0%
2) 외부 필진 의뢰 제작	2	16.7%
3) 담당기자와 외부 필진의 분담	7	58.3%
4) 기타	0	0%
계	12	100%

(7) NIE 예산 확보

신문사에서 NIE 활동하는데 필요한 ‘NIE 예산이 확보됐는지’를 물었더니 <표 II-11>처럼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지급받고 있다’ (41.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고정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25.0%),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 (16.7%), '부서비 또는 다른 항목으로 마련하고 있다' (8.3%), '후원 받는다' (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1〉 NIE 예산 확보

	사례 수	백분율
1) 고정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3	25.0%
2)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지급받고 있다	5	41.7%
3) 부서비 또는 다른 항목으로 마련하고 있다	1	8.3%
4)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	2	16.7%
5) 후원 받는다	1	8.3%
6) 기타	0	0%
계	12	100%

2) '디지털 매체 운용' 분야

(1) 운용 형태

신문사 NIE 프로그램을 디지털 매체로 활용할 경우 '운용 형태가 무엇인지' 질문했더니 〈표 II-12〉처럼 '홈페이지' (38.1%)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인터넷 카페' (33.3%), '블로그' (14.3%),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9.6%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12〉 운용 형태

	사례 수	백분율
1) 홈페이지	8	38.1%
2) 인터넷 카페	7	33.3%
3) 블로그	3	14.3%
4)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	2	9.6%
5) 다른 형태	1	4.75%
계	21	100%

(2) 지면과 연계

디지털 매체를 운영함에 있어 ‘신문지면의 내용과 어느 정도 연계하는지’를 물었더니 <표 II-13>처럼 ‘지면 내용과 함께 다른 아이템도 수록한다’(61.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지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23.0%)고 답하였다. 반면 ‘지면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도 15.4%나 되었다.

<표 II-13> 지면과 연계

	사례 수	백분율
1) 지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	3	23.0%
2) 지면 내용과 함께 다른 아이템도 수록한다	8	61.6%
3) 지면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2	15.4%
계	13	100%

(3) 다루는 주제

‘디지털 매체를 통해 NIE 프로그램에 다루는 주제’를 질문했더니 <표 II-14>에서 보듯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는 ‘교육’, ‘글쓰기·논술’로 각각 8.9%로 집계되었다. 이어 ‘과학’(7.6%)이 뒤를 이었으며, 각각 6.3%로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14> 다루는 주제

	사례 수	백분율
1) 정치	5	6.3%
2) 경제	5	6.3%
3) 사회	5	6.3%
4) 문화	5	6.3%
5) 스포츠	4	5.0%
6) 과학	6	7.6%
7) 교육	7	8.9%

8) 인물	4	5.0%
9) 환경	4	5.0%
10) 인성	4	5.0%
11) 보건	2	2.5%
12) 안전	2	2.5%
13) 에너지	2	2.5%
14) 인권	3	3.8%
15) 다문화	4	5.0%
16) 미디어	5	6.3%
17) 글쓰기·논술	7	8.9%
18) 정보화 및 정보윤리	2	2.5%
19) 민주 시민	2	2.5%
20) 기타	1	1.3%

(4) 독자 대상

‘디지털 매체를 통해 NIE 프로그램의 독자는 누구인지’를 물었더니 <표 II-15>처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응답이 각각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대학생’과 ‘일반 독자’라는 응답이 각각 10.7%로 집계되었다.

〈표 II-15〉 독자 대상

	사례 수	백분율
1) 유아	1	3.6%
2) 초등학생	7	25%
3) 중학생	7	25%
4) 고등학생	7	25%
5) 대학생	3	10.7%
6) 일반 독자	3	10.7%
7) 기타	0	0%

3) ‘신문사 주관 강좌 운영’ 분야

(1) 강좌 운영 형태

신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 운영 형태는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표 II-16>처럼 ‘신문사 지정 장소에서 집합교육’ (41.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외부단체와 공동 운영’ (33.3%), ‘일선 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 (16.7%)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16〉 강좌 운영 형태

	사례 수	백분율
1) 신문사 지정 장소에서 집합교육	5	41.6%
2) 외부단체와 공동 운영	4	33.3%
3) 일선 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	2	16.7%
4) 기타	1	8.3%

(2) 강좌의 단계

운영하고 있는 ‘NIE 강좌의 단계’는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표 II-17>처럼 ‘중급과정’ (37.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초과정’ (31.2%), ‘고급과정’ (18.8%), ‘전문가과정’ (12.5%)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17〉 강좌의 단계

	사례 수	백분율
1) 기초과정	5	31.2%
2) 중급과정	6	37.5%
3) 고급과정	3	18.8%
4) 전문가과정	2	12.5%

(3) 강좌의 대상

운영하고 있는 ‘NIE 강좌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물었더니 <표 II-18>처럼 ‘학부모’, ‘초등학생’, ‘중·고교생’이 각각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등 교원’(11%), ‘유아교육기관 교사’, ‘초등 교원’(7.4%), ‘강사’(7.4%) 등 지도자(교·강사) 과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8> 강좌의 대상

	사례 수	백분율
1) 유아교육기관 교사	2	7.4%
2) 초등 교원	2	7.4%
3) 중등 교원	3	11%
4) 학부모	4	14.8%
5) 유아	2	7.4%
6) 초등학생	4	14.8%
7) 중·고교생	4	14.8%
8) 대학생	3	11%
9) 강사	2	7.4%
10) 기타	1	3.7%

(4) 이수 후 결과

NIE 강좌를 ‘이수한 후 결과’는 무엇인가를 질문했더니 <표 II-19>처럼 ‘수료증 발급’(3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인증서 발급’(22.2%), ‘없다’(22.2%)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격증 발급’은 11.1%로 집계되었다.

<표 II-19> 이수 후 결과

	사례 수	백분율
1) 자격증 발급	1	11.1%
2) 수료증 발급	3	33.3%
3) 인증서 발급	2	22.2%
4) 없다	2	22.2%
5) 기타	1	11.1%

4) ‘NIE 관련 발행물 발간’ 분야

(1) NIE 관련 발행물 유형

‘NIE 관련 발행물을 만드는지’를 질문한 결과, <표 II-20>처럼 ‘활동지 발간’과 ‘교재 발간’을 각각 33.3%가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교구개발’ (12.5%)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는 25%로 집계되었다.

〈표 II-20〉 NIE 관련 발행물 유형

	사례 수	백분율
1) 활동지 발간	5	31,3%
2) 교재 발간	5	31,3%
3) 교구개발	2	12,5%
4) 기타	4	25%

(2) 발행주기

NIE 관련 ‘발행물의 주기’를 물었더니 <표 II-21>처럼 ‘비정기’ (33.3%)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간’ (22.2%), ‘격주간’ (22.2%)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21〉 발행주기

	사례 수	백분율
1) 주간	2	22,2%
2) 격주간	2	22,2%
3) 월간	1	11,1%
4) 연간	1	11,1%
5) 비정기	3	33,3%

(3) 대상 독자

NIE 관련 ‘발행물의 대상 독자’를 질문했더니 <표 II-22>처럼 ‘중·고

교생’ (27.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초등학생’ (22.2%), ‘초등 교원’ (11.1%), ‘중등 교원’ (11.1%), ‘학부모’ (11.1%),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유아교육기관 교사’ (5.6%), ‘유아’ (5.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을 독자로 삼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표 II-22〉 대상 독자

	사례 수	백분율
1) 유아교육기관 교사	1	5.6%
2) 초등 교원	2	11.1%
3) 중등 교원	2	11.1%
4) 학부모	2	11.1%
5) 유아	1	5.6%
6) 초등학생	4	22.2%
7) 중·고교생	5	27.8%
8) 대학생	0	0%
9) 강사	1	5.6%
10) 기타	0	0%

5) ‘견학 등 체험 프로그램’ 분야

(1) 체험 프로그램의 유형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유형’을 질문했더니 〈표 II-23〉처럼 ‘신문사 견학’ (36.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학생 기자단 운영’ (22.7%), ‘기자 교육현장 출강’ (18.2%), ‘기자 캠프 운영’ (13.6%)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23〉 체험 프로그램의 유형

	사례 수	백분율
1) 신문사 견학	8	36.4%
2) 학생 기자단 운영	5	22.7%
3) 기자 캠프 운영	3	13.6%

4) 기자 교육현장 출강	4	18,2%
5) 학교 신문 또는 교지 제작 지원	1	4,5%
6) 기타	1	4,5%

(2) 체험 프로그램 대상

‘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을 질문한 결과, <표 II-24>처럼 ‘중·고교생’ (26.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초등학생’ (23.3%), ‘대학생’ (20%), ‘유아’ (13.3%)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24> 체험프로그램 대상

	사례 수	백분율
1) 유아	4	13,3%
2) 초등학생	7	23,3%
3) 중·고교생	8	26,7%
4) 학부모 및 일반인	4	13,3%
5) 대학생	6	20%
6) 강사	1	3,3%

6) ‘교육용 신문 지원’ 분야

(1) 배부 대상

신문사가 ‘교육용 신문을 어떤 곳에 지원하는지’를 질문했더니 <표 II-25>처럼 ‘초등학교’ (36.4%)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고교’ (33.3%), ‘대학교’ (6%), ‘복지관’ (6%)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25> 배부 대상

	사례 수	백분율
1) 유아교육기관	1	3%
2) 초등학교	12	36,4%
3) 중·고교	11	33,3%

4) 대학교	2	6%
5) 사회단체	1	3%
6) 복지관	2	6%
7) 문화센터	1	3%
8) 기타	3	9.1%

(2) 전달 방법

신문사가 ‘교육용 신문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물었더니 <표 II-26>처럼 ‘지국을 통해 전달’ (64.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본사에서 직접 전달’ (23.5%), ‘수익자가 직접 수령’ (5.9%), ‘우편’ (5.9%)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26> 전달 방법

	사례 수	백분율
1) 본사에서 직접 전달	4	23.5%
2) 지국을 통해 전달	11	64.7%
3) 수익자가 직접 수령	1	5.9%
4) 우편	1	5.9%
계	17	100%

(3) 신문사별 지원 부수

신문사가 ‘최근 교육용 신문을 얼마나 지원하는지’를 물었다. <표 II-27>에서 나타났듯이 응답한 신문사 가운데 ‘조선일보’가 3만부(월 2,500부)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신문’ (7904부/월 988부), ‘전북도민일보’ (4640부/월 580부), ‘경남일보’ (3728부/월 466부), ‘대구일보’ (2608부/월 326부) 순으로 교육용 신문을 지원하고 있었다.

〈표 II-27〉 신문사별 지원 부수

신문사	지원 부수(연/월)
동아일보	유동적
매일경제	부정기
조선일보	3만부/2500부
경남신문	8개월 7904부/월988부
경남일보	3728부/466부
경북일보	일 550부
경인일보	연 988부
대구일보	2608부/326부
전북도민일보	4640부/580부
전북일보	월 400부
제주일보	월600부씩 8개월간
어린이강원일보	1000부/100부

(4) 구독료 여부

신문사가 ‘교육용 신문에 대해 구독료를 받는지’를 질문했더니 〈표 II-28〉처럼 ‘무료 지급’과 ‘일부 후원비’라는 응답이 각각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상황에 따라 후원비 또는 무료로 지원하는 경우인 ‘기타’에는 21.6%가 응답했으며, ‘전액 후원비’는 7.2%로 나타났다.

〈표 II-28〉 구독료 여부

	사례 수	백분율
1) 전액 후원비	1	7.2%
2) 일부 후원비	5	35.7%
3) 무료 지급	5	35.7%
4) 기타 (상황에 따라 후원비 및 무료 지원)	3	21.6%
계	14	100%

7) ‘NIE 사업 또는 학술행사’ 분야

(1) 신문사별 NIE 행사와 사업 수 및 참가비

신문사가 진행하는 ‘NIE 사업의 수’를 물었더니 <II-29>처럼 ‘조선일보’, ‘한국경제’, ‘강원도민일보’, ‘한라일보’가 각각 2개라고 응답하였다. ‘경남일보’와 ‘어린이강원일보’는 각각 1개라고 응답하였다. 이어 신문사가 진행하는 ‘NIE 행사의 수’를 질문한 결과, ‘조선일보’, ‘경남신문’, ‘전북일보’가 각각 2개라고 응답하였다. ‘매일경제’, ‘중앙일보’, ‘한국경제’, ‘한라일보’, ‘어린이강원일보’는 각각 1개라고 응답하였다. NIE 행사와 사업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참가비는 응답 신문사 모두 ‘무료’라고 응답하였다.

〈표 II-29〉 신문사별 행사와 NIE 사업 수 및 참가비

신문사	행사 및 사업 수		참가비	
	행사	사업	행사 및 사업	학술대회
매일경제	1	0	무료	무료
조선일보	2	2	무료	무료
중앙일보	1	0	무료	무료
한국경제	1	1~2	무료	무료
강원도민일보	0	2	무료	무료
경남신문	2	0	무료	무료
경남일보	0	1	무료	무료
전북일보	2	0	무료	무료
한라일보	1	2	무료	무료
어린이강원일보	1	1	무료	무료

(2) NIE 행사와 사업의 대상

신문사가 진행하는 ‘행사와 사업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질문했더니 <표 II-30>처럼 ‘초등학생’, ‘중·고교생’, ‘학부모 및 일반인’이 각각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30〉 행사와 사업의 대상

	사례 수	백분율
1) 유아	2	6.5%
2) 초등학생	7	22.6%
3) 중·고교생	7	22.6%
4) 대학생	2	6.5%
5) 학부모 및 일반인	7	22.6%
6) 강사	3	9.7%
7) 기타	3	9.7%

3. 신문사 NIE 담당자 면접조사 결과

1) 면접대상 및 면접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앞서 실시한 ‘신문사 NIE 담당자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응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자는 총 7명이며, 2개의 집단군(수도권 5개 신문사 담당자와 지방의 2개 신문사 담당자)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NIE 프로그램에 대해 신문사 내부 및 외부의 반응, 강점이나 장점, 단점이나 방해요소, NIE가 신문경영에 주는 효과, NIE 담당자의 재교육 또는 연수 필요성, NIE 담당자의 업무 비중, 신문사 간 정보교류, 향후 NIE의 방향 등 8가지로 구성하였다.

답변기술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의 이름 및 소속은 이들이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 7명에게 알파벳을 부여하여 답변을 정리하였다.

2) 답변 기술 및 분석

(1) 신문사 내부 및 외부의 반응

NIE 담당자들에게 ‘현재 운영 중인 NIE 프로그램에 대해 신문사 내부 및

외부의 반응'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자 A는 “신문사에서는 NIE 프로그램이 미래 독자 확보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독자층 강화 효과로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무료 NIE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사 대상 NIE 연수는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자 B는 “학교 쪽에선 기존 사설업체보다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신뢰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학기 연속 수강률이 높은 점으로 봤을 때 만족도는 높다고 판단된다. 반면 신문사 사업부에서는 NIE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고, 편집부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접근한다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담당자 C는 “신문사 내부에서는 언젠가 NIE 사업이 내부 수익과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문사 외부에서는 NIE가 입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서로 충족되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답하였다.

담당자 D는 “교육 지면과 NIE면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이 높다. 지면과 예산을 꾸준히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특히 판매 쪽에서는 교육의 가치를 내세우며 마케팅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세일즈 포인트가 생겨서 반응이 좋다. 외부에서도 칭찬과 격려가 더 많다. NIE 지면이 특히 그렇다.”고 답하였다.

담당자 E는 “신문지면의 경우 NIE면을 주 1회 제작하고 있다. 사실 지면에 대해서 내부 또는 외부의 평가를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들은 의견은 학생보다는 교사나 학부모를 위한 지도방법에 주력해서 약간 어려운 느낌이라고 한다. 또 학생 혼자 읽으면서 무슨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유용한 자료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담당자 F는 “NIE 프로그램에 대해 신문사 내부 및 외부의 반응은 긍정적이다.”고 말하였다.

담당자 G는 “신문사 내부에서는 NIE 워크북 콘테스트의 경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내부 인력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반응이 좋

다. 외부에서는 NIE 워크북 콘테스트가 교사들이 교육관심사인 진로교육 및 친환경교육을 주제로 한 것이어서, 창의체험활동이나 수행평가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워크북을 추가로 주문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면접조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II-31>과 같다.

<표 II-31> 신문사 내부 및 외부의 반응에 대한 답변

구분	답 변
담당자 A	내부 : 독자층 강화 효과 기대 외부 : 무료 NIE 교육프로그램 확대 기대
담당자 B	내부 : 공익과 수익의 시각에 따라 반응의 차이 외부 : 만족도 높음
담당자 C	내부 : 내부 수익과 연결 기대 외부 : NIE가 입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담당자 D	내부 : 경영진의 관심이 높다 외부 : 칭찬과 격려가 많다
담당자 E	내부 또는 외부의 평가를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다
담당자 F	내부 및 외부의 반응은 긍정적임
담당자 G	내부 및 외부의 반응은 좋다

위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담당자들은 NIE 프로그램에 대해 신문사 내부 및 외부의 반응을 “긍정적”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다만, 신문사 내부에서 ‘공익’과 ‘수익’에 대한 시각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강점(특화)이나 장점

NIE 담당자들에게 ‘귀사의 NIE 프로그램의 강점(특화)이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담당자 A는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CEO특강, 신문제작, 경제대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대답하였다.

담당자 B는 “매주 나오는 NIE 지면이다. 매주 사회 이슈 2개(고교NIE,

중학NIE)와 논쟁거리 1개를 ‘이슈-배경-관점-심화’ 순서로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 매주 새로운 사회 이슈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지면을 바탕으로 읽고 말하고 쓰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며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담당자 D는 “신문지면과 NIE 교육센터, 교원직무연수이다. 지면은 공을 많이 들이는 지면이라 퀄리티 있는 콘텐츠라고 자부한다. 또한 특정 주제에 관해 신문 형태의 학습교재를 개발해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특별한 섹션 모델이다. NIE 교육센터도 수익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운영할 수 없는 사업이다. 적자를 보면서도 매년 열고 있는 교원직무연수, 학교 신문 지원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담당자 E는 “NIE 지면에서 고기를 직접 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에 대한 내용에 무게 중심이 있다는 점이 타지와 차이이다. 무슨 내용을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학생에게 무슨 내용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주력하는 점이 특징이다.”고 답하였다.

담당자 E는 “창간 ○○주년을 맞아 NIE 지면을 크게 할애해 왔고, 올해로 제○회를 맞는 NIE 대회의 인지도가 큰 강점이다.”고 응답하였다.

담당자 G는 “매년 열리는 NIE 워크북 콘테스트가 강점이다. 타 신문사에서 시행하지 않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신문사 인력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면접조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II-32>와 같다.

〈표 II-32〉 강점(특화)이나 장점에 대한 답변

구분	답 변
담당자 A	CEO특강, 신문제작, 경제대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담당자 B	NIE 지면
담당자 C	무응답
담당자 D	신문지면과 NIE 교육센터, 교원직무연수
담당자 E	NIE 지면
담당자 F	NIE 지면과 NIE 대회
담당자 G	NIE 워크북 콘테스트

담당자들은 대체로 NIE 지면을 자사의 강점으로 꼽았다. 이 부분은 신문을 통해 독자(NIE 이용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특강, NIE 대회, 워크북 콘테스트 등 사업성이 강한 프로그램이 강점이라고 밝힌 신문사도 있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통해 독자(NIE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면서, NIE 프로그램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때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단점이나 방해요소

NIE 담당자들에게 ‘귀사의 NIE 프로그램의 단점이나 방해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자 A는 “NIE 프로그램이 대부분 공익사업인 만큼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였다.

담당자 B는 “NIE 지면을 제작할 때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우리 신문사 콘텐츠만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예전에는 각 신문사의 사설까지 사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저작권 문제가 더 민감해졌기 때문에 거의 신문사 간 교류가 없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독자들은 편향된 자료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선도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담당자 C는 “신문사에는 교육팀이 있긴 하지만, NIE를 맡는 사람은 담당 기자 뿐이다. 물론 연구위원단(교수, 교사 등)의 도움도 받긴 하나 한계가 있다. 신문사가 NIE를 주도해야 하는데 기자 개인이 혼자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담당자 D는 “비단 우리 신문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신문이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한 홍보가 어렵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독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신문을 보지 않는 이들에게 NIE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어 고민이다.”고 밝혔다.

담당자 E는 “NIE 지면이 약간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면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혼자 읽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였다.

담당자 F는 “지방지라는 자체, 인식 등에서 고충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담당자 G는 “NIE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교재용 신문을 무료로 보급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은 면접조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II-33>과 같다.

〈표 II-33〉 단점이나 방해요소에 대한 답변

구분	답 변
담당자 A	재원 조달이 어려움
담당자 B	NIE 지면을 제작할 때 저작권의 문제
담당자 C	NIE 담당기자의 업무 과중
담당자 D	NIE 프로그램 홍보 채널이 다양하지 못하다
담당자 E	NIE 지면이 약간 어렵다
담당자 F	지방지라는 자체의 고충
담당자 G	NIE 프로그램 예산 확보 애로

담당자들은 예산 확보와 지면 제작과정에서 고충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NIE가 공익사업의 성격이어서 수익을 내지 못한 까닭으로 신문사 또는 외부로서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저작권법에 묶여 신문지면상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제약임을 알 수 있었다.

(4) NIE가 신문경영에 주는 효과

NIE 담당자들에게 ‘NIE 프로그램이 신문 인지도 또는 경영 등에 도움이 되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담당자 A는 “신문의 인지도 향상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경영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이다.”고 밝혔다.

담당자 B는 “2007년 10월부터 지면을 발행하고 있고,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NIE 프로그램의 호응이 좋은 점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신문 인지도 또는 경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고 답하였다.

담당자 D는 “신문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또 당장의 매출이나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진 않지만 가장 미래 지향적인 사업 이라고는 본다. 홍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진 않지만, 경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였다.

담당자 E는 “신문 업계 전체적으로 구독률과 열독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다. NIE면으로는 인지도나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응답 하였다.

담당자 F는 “NIE를 하는 것은 미래 독자를 확보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자를 확보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담당자 G는 “신문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경영에는 도 움이 안 된다. 오히려 인력을 들여야 하므로 손실이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면접조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II-34>와 같다.

<표 II-34> NIE가 신문경영에 주는 효과에 대한 답변

구분	답 변
담당자 A	인지도는 향상, 경영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
담당자 B	신문 인지도 또는 경영에 도움
담당자 C	무응답
담당자 D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영에 도움
담당자 E	인지도나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담당자 F	실질적으로 독자 확보에 미흡
담당자 G	신문 인지도 향상에 도움, 경영에는 도움 안 된다

담당자들은 신문 인지도 향상에 대체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경영적 측면에서는 주장이 엇갈렸다. 지금은 경영에 도움을 주지 못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와 실질적으로 독 자 확보에 애로가 있고 신문 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때 경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이는 소속 신문사의 경영진이 NIE를 멀리보 고 기다려야 한다는 ‘공익’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 NIE 프로그램 투입과 동시에 이익을 염두에 두는 ‘수익’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 다. 이 같은 방침이 NIE 담당자들의 의견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5) NIE 담당자의 재교육 또는 연수 필요성

NIE 담당자들에게 ‘재교육 또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자 A는 “연수를 통해 국내외 언론사들의 NIE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자 B는 “지면 제작, 학생 교육 방법, 교육성과 등 NIE 담당자들에게 유의한 정보, 필요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재교육 또는 연수가 필요하다. 다만 NIE 담당자들은 연구자가 아니라 실무자란 점을 고려해 맞춤 교육 프로그램이었으면 한다.”고 주장하였다.

담당자 C는 NIE는 “연수는 신문기사 자체보다 다양한 분야를 교과와 연계하여 이해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문의 교육적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당자 D는 “기자로서 NIE를 바라보는 것과 교육 전문가로서 바라보는 것은 다를 것 같다. 교육과정이나 교육행정, 평생교육, 교육공학 등 전문적인 교육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회사의 경우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막상 수업을 받고 보니 늘 하던 일도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어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

담당자 E는 “재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외국의 NIE 사례, 특히 신문 인지도 및 경영과의 연관성 속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담당자 F는 “NIE 담당자를 위한 연수는 필요하다. NIE를 보급하는 대상이 교사와 학생이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에 발맞추기 위해서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담당자 G는 “언론사 NIE 담당자, 교육청 장학사나 교사, NIE 전문가가 팀이 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물을 도출하는 코칭 형태의 연수가 좋겠다. 언론진흥재단이나 신문협회서 발간한 교재나 워크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형태의 심화 연수도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은 면접조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II-35>와 같다.

<표 II-35> NIE 담당자의 재교육 또는 연수 필요성에 대한 답변

구분	답 변
담당자 A	언론사들의 성공사례 벤치마킹 및 콘텐츠 제공 필요
담당자 B	실무자 맞춤 교육 프로그램 필요
담당자 C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재교육이 필요
담당자 D	교육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
담당자 E	신문 인지도 및 경영 관련 재교육과 연수 필요
담당자 F	변화하는 교육환경 적응을 위해 필요
담당자 G	성과를 도출하는 코칭 형태의 연수 필요

담당자들은 재교육 또는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특히 NIE 실무를 맡은 입장에서 교육 방법, 교육성과, 교육환경 변화상 등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6) NIE 담당자의 업무 비중

NIE 담당자들에게 ‘귀사의 NIE 담당자들은 ‘공익적 업무’(지면, 강의 등)와 ‘수익적 업무’(사업, 행사 등)의 업무 비중을 어디에 많이 두는 편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담당자 A는 “NIE 프로그램은 거의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공익적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였다.

담당자 B는 “부서별로 업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높다는 식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NIE 지면 제작 담당은 공익성 100%, NIE 프로그램 담당은 수익성 100%이다.”고 응답하였다.

담당자 C는 “NIE는 공익적 접근과 사익 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둘을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NIE를 신문사에서 수익만을 바라보고 하는 사익추구 활동으로 여기는 교사들도 NIE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자 D는 “공익적 업무와 수익적 업무의 비중은 50 대 50이다. 지면과

섹션 제작, 공익적 행사(직무연수나 NIE 대회) 등도 챙기고 교육센터 운영도 직접 관여를 한다.”고 대답하였다.

담당자 E는 “NIE를 전담하는 조직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 그렇지만 대체로 공익적 업무에 비중이 높은 편이다.”라고 말하였다.

담당자 F는 “공익적 업무비중이 높다. 지면의 한계가 있지만 신문 본지에 주 1개 면, 어린이신문에 주 3개 면을 할애한다. 행사는 연 1회 NIE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담당자 G는 “공익적 업무와 수익적 업무의 비중은 40 대 60 정도이다. 우리 신문은 지면 수가 적어 지면에서 NIE를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또한 사업, 행사 등은 하지만 수익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면접조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II-36>과 같다.

<표 II-36> NIE 담당자의 업무 비중에 대한 답변

구분	답 변
담당자 A	공익적 업무에 주안점
담당자 B	정확한 답변이 곤란
담당자 C	공익과 사익 추구를 이원적으로 운영
담당자 D	업무 비중은 50 대 50
담당자 E	공익적 업무에 비중이 높은 편
담당자 F	공익적 업무비중이 높다
담당자 G	업무 비중은 40 대 60

담당자들은 공익적 업무의 비중이 높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지만, 수익적 업무도 50% 안팎인 곳이 3곳이나 되었다. 이는 신문사들마다 추구하는 NIE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NIE 담당자의 업무 비중이 ‘공익적 업무이냐’, ‘수익적 업무이냐’로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신문사 간 정보교류

NIE 담당자들에게 ‘신문사 간 NIE 프로그램의 업무협조 또는 정보교류는 원활한 편인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자 A는 “타사 NIE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업무협조 또는 교류를 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담당자 B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 신문사별로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경쟁이 되는 부분도 많다. 이로 인해 경쟁사끼리 협조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교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담당자 D는 “거의 교류가 없다. 우리 신문사가 NIE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 다른 곳은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담당자 E는 “다른 신문사와의 업무협조나 정보교류는 거의 없다. 지면제작이 위주여서 협조나 교류를 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하였다.

담당자 F는 “신문사 간 NIE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보교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담당자 G는 “담당자가 시간이 많지 않고, 인력이 적어 정보교류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면접조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II-37>과 같다.

〈표 II-37〉 신문사 간 정보교류에 대한 답변

구분	답 변
담당자 A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 한다
담당자 B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담당자 C	무응답
담당자 D	거의 교류가 없다
담당자 E	거의 없다.
담당자 F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
담당자 G	정보교류를 못하고 있다

담당자들은 대부분 신문사 간 NIE 프로그램의 업무협조 또는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NIE 담당자들이 서로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NIE 지면이나 사업 등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 서로 교류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 향후 NIE의 방향

NIE 담당자들에게 ‘우리나라 NIE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자 A는 “신문 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어 변신이 시급하다. NIE 사업도 당장 수익을 따지기보다는 미래의 생존을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자 B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학생들이 일단 신문에 친숙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신문을 활용한 교육이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은 대학 입시로 귀결된다. 자칫 신문활용교육마저 그런 식으로 바뀐다면 오히려 NIE가 신문을 멀리 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또한 교육환경이 디지털화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신문에서 빠르게 정보를 찾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담당자 D는 “NIE는 결국은 공교육 안에 녹아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에서 강좌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재도 제작하지만, 신문사가 학교 전체를 지원하려 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이 직접 사업을 다 실행해버리니 신문사의 NIE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재단이 굳이 다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대답하였다.

담당자 E는 “정부 예산으로 초·중·고교에 신문을 보급해서 교육에 활용토록 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특히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담당자 F는 “NIE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당국에서 교육적 효과에 대해 바로 인식하고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당자 G는 “지역 NIE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과감하게 지역신문에 할애해야 한다. 지역신문사 인력이 지역사회와 밀착된 NIE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NIE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국지 신문사에 NIE용 신문 구독비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신문 무상제공에 그칠 뿐 아니라 한국 신문시장의 8 : 2 기형적 구조만 부추기고 NIE 정착은 더욱 요원해

진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면접조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II-38>과 같다.

〈표 II-38〉 향후 NIE의 방향에 대한 답변

구분	답 변
담당자 A	NIE 사업도 당장 수익보다 미래의 생존을 위한 지지대 역할 모색
담당자 B	학생들이 신문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
담당자 C	무응답
담당자 D	언론진흥재단 사업이 신문사들과 겹치는 부분 많아 조정해야
담당자 E	정부 예산으로 초·중·고교에 신문을 보급
담당자 F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필요
담당자 G	정부 예산을 과감하게 지역신문에 할애해야 한다

담당자들은 ‘신문사들이 NIE를 생존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NIE가 신문사에 당장 수익을 전해주는 사업은 아니지만, 장기적 투자라는 인식 속에서 미래 독자를 위한 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 분석결과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국 22개 신문사의 NIE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7개 신문사의 NIE 담당자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NIE 담당자 설문조사 요약

첫째, ‘신문지면 게재’ 분야이다. 신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용 신문 지원’과 ‘NIE 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가 각각 72.7%로 가장 높게 나왔다. 발행지면 형태는 ‘본지 중 독립적 지면’(53.8%)이 많았으며,

NIE 지면 구성 및 기사 작성할 때 의사결정 주체는 ‘담당 기자 결정 후 데스크 승인’ (54.5%)이 많았다. 이어 NIE 지면 등에 참여하는 외부 집필진은 ‘3명 이상’ (75.0%)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외부 필진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는 곳은 응답 신문사의 60%에 불과하였다. 신문사에서 NIE 예산을 확보한 곳은 응답 신문사의 25.0%에 그쳤다.

둘째, ‘디지털 매체 운용’ 분야이다. 디지털 매체와 신문지면 내용을 연계한다는 응답이 61.6%로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NIE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는 ‘교육’, ‘글쓰기·논술’로 각각 8.9%로 집계되었다.

셋째, ‘신문사 주관 강좌 운영’ 분야이다. 신문사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강좌 운영형태는 ‘집합교육’ (41.6%)이었다. NIE 강좌의 대상은 ‘학부모’, ‘초등학생’, ‘중·고교생’이 각각 14.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유아 및 대학생들이 초·중·고교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강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NIE 관련 발행물 발간’ 분야이다. NIE 관련 발행물 유형은 ‘활동지 발간’과 ‘교재 발간’이 각각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행물의 주기는 ‘비정기’ (33.3%)라는 응답이 많았다. 발행물의 대상 독자는 ‘중·고교생’ (27.8%)이 많았다.

다섯째, ‘견학 등 체험 프로그램’ 분야이다.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유형은 ‘신문사 견학’ (36.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은 중·고교생이 26.7%로 집계되었다.

여섯째, ‘교육용 신문 지원’ 분야이다. 신문사가 교육용 신문을 ‘초등학교’ (36.4%)에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방법은 ‘지국을 통해 전달’ (64.7%)이 많았다. 구독 비용 여부는 ‘무료 지급’과 ‘일부 후원비’라는 응답이 각각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NIE 사업 또는 학술행사’ 분야이다. 신문사가 진행하는 ‘NIE 사업의 수’가 2개 이상인 신문사는 4곳이었다. 이어 신문사가 진행하는 ‘NIE 행사의 수’가 2개 이상인 신문사는 3곳으로 나타났다.

2) NIE 담당자 면접조사 요약

첫째, NIE 프로그램에 대해 신문사 내부 및 외부의 반응은 “긍정적”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둘째, NIE 프로그램의 강점(특화)이나 장점은 대체로 ‘NIE 지면’이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NIE 프로그램의 단점이나 방해요소는 예산 확보와 지면 제작과정에서의 고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법에 묶여 NIE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넷째, NIE 프로그램이 신문 인지도 또는 경영 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섯째, 담당자들은 재교육 또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여섯째, NIE 담당자들은 공익적 업무에 비중이 높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지만, 수익적 업무도 50% 안팎인 곳이 3곳이나 되었다.

일곱째, 신문사 간 NIE 프로그램의 업무협조 또는 정보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덟째, ‘신문사들이 NIE를 생존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3) 제언

지금까지 NIE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IE 지면 제작에 참여하는 기자 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NIE 지면을 담당하는 기자 수가 ‘1명’(41.7%)이거나 ‘없다’(8.3%)는 신문사가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NIE 지면 등에 참여하는 외부 집필진 수가 ‘3명 이상’인 곳이 75.0%에 달했으며, ‘1명’이라는 곳도 16.7%나 되었다. 이는 NIE 지면을 담당기자 없이 외부 집필진에게 맡겨 운

영하거나, 콘텐츠 제작 및 결정을 외부 집필진에게 의존하는 신문사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물론 외부 집필진의 집필 수준이나 콘텐츠 개발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신문사마다 나름의 NIE의 특징을 살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NIE 전담 기사를 두고 콘텐츠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NIE 담당자를 위한 재교육 또는 연수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또한 신문자료의 홍수, 신문자료별 활용방법의 다양화, 신문독자의 교육적 욕구 증대 등 교재용으로 써 신문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제때 적응하려면 담당자의 기존 역량과 의지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담당자들이 변화하는 NIE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재충전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신문사의 인식 전환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한국신문협회의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교재용 신문자료’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 신문 콘텐츠의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NIE 지면을 제작할 때 소속사의 신문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자사 자료만으로 편중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즉 다른 매체에 나온 신문자료를 비교, 대조, 예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지 못해 콘텐츠 제작의 다양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해결방안으로 신문사들이 NIE 지면 제작에 ‘교재용 신문자료’로 활용될 경우 저작권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합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신문협회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중과 방송에서 실시하고 있는 타사 방송 활용 비율 가이드라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즉 신문업계에서도 ‘교재용 신문자료’로 활용될 경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교재용 신문자료로 타사 기사를 활용할 경우 주당 ○건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사 1건당 타사 기사의 비율은 ○○% 이내’ 등의 기준을 마련해 NIE 자료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신문사 간의 밀접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신문사 간 NIE 프로그램의 업무협조 또는 정보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NIE라는 공동의 과제를 두고 신문사들은 사실 따로 움직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사의 입장에서 볼 때 협력관계를 맺는 것에 조심스

러웠을 것이다. 즉 신문사들은 NIE를 경쟁과 충돌의 관계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NIE라는 영역의 발전과 NIE 콘텐츠의 다양성 확대라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오해를 벗고 상생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NIE의 토대가 약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견제보다 교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한국신문협회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축이 되어 신문사 간의 NIE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신문사 NIE 강좌의 수강 대상을 넓혀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신문사에 운영하는 강좌에는 학습자 그룹에 비해 교수자 그룹의 수강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 그룹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유아 및 대학생들이 초·중·고교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강 기회가 빈약하였다. 이 같은 강좌 대상의 편중은 아직 유아 및 대학생들의 NIE 콘텐츠가 척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신문사의 측면에서 관심을 보이기에선 ‘시장’이 좁다는 인식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초·중·고교생에게는 NIE가 집중된다면 NIE의 교육적 계열성이 단절되거나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아 및 대학생들을 위한 NIE 강좌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교원 및 강사 등 교수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NIE 강좌도 더 많이 개설해야 한다.

III.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NIE

1.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NIE 현황

1) 설문조사의 대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77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리서치 기관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다음 <표 III-1>과 같이 총 12개의 시·도교육청과 123개의 교육지원청이었으며, 전국의 교육청을 기준으로 약 69.6%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설문에 응한 교육청들을 모두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설문 응답률 및 설문에 응답한 교육청

		전체	사례 수	백분율
시·도교육청		17	12	70.6 %
지역교육지원청		177	123	69.5 %
총계		194	135	69.6 %

		교육청 명	응답 수
시·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2
지역 교육 지원청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4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4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2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1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달성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4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1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1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16

	시흥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강원도	고성교육지원청, 동해교육지원청, 삼척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양구교육지원청, 영월교육지원청, 원주교육지원청, 인제교육지원청, 철원교육지원청, 춘천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청, 홍천교육지원청, 화천교육지원청, 횡성교육지원청	14
충청북도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9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9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김제교육지원청, 남원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 익산교육지원청, 장수교육지원청, 전주교육지원청, 진안교육지원청	8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 광양교육지원청, 나주교육지원청, 담양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 순천교육지원청, 신안교육지원청, 영광교육지원청, 영암교육지원청, 장성교육지원청, 장흥교육지원청, 함평교육지원청, 해남교육지원청, 화순교육지원청	14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 고령교육지원청, 구미교육지원청, 군위교육지원청, 김천교육지원청, 봉화교육지원청, 상주교육지원청, 성주교육지원청, 영덕교육지원청, 영양교육지원청, 영주교육지원청, 영천교육지원청, 예천교육지원청, 울릉교육지원청, 울진교육지원청, 의성교육지원청, 청도교육지원청, 청송교육지원청, 칠곡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	20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남해교육지원청, 밀양교육지원청, 산청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하동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함양교육지원청, 합천교육지원청	14
제주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2
합계	총 135(시·도교육청:12, 교육지원청:123)	

2) 설문조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청에서 단위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지원 양상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조사 범위와 내용을 설정해 보았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기본사항, 투입(input)지표, 과정(process)지표, 결과(output)지표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III-2〉 질문지 내용 구성

기본사항	관련 업무 시행 기간, 담당 부서 및 관련 홈페이지 유무	4문항	총 17문항
투입지표	예산, 협력기관	2문항	
과정지표	관련 공문발송 횟수, 연구·시범학교, 관련 연수, 학술행사, 교재발행, 홍보형태	8문항	
결과지표	교사 연구회 유무, 평가 방식, 어려운 점	3문항	

2.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NIE 설문조사 분석

1) 기본 사항

(1) NIE 관련 업무 시행 기간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반 이상이 NIE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관련 업무를 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도 약 15% 정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시·도교육청 NIE 관련 업무 시행 기간

	사례 수	백분율
1년 미만	2	16.7 %
1년 이상-2년 미만	2	16.7 %
2년 이상-3년 미만	1	8.3 %
3년 이상	7	58.3 %
총계	12	100 %

〈표 III-4〉 교육지원청 NIE 관련 업무 시행 기간

	사례 수	백분율
1년 미만	18	14.6 %
1년 이상-2년 미만	14	11.4 %
2년 이상-3년 미만	29	23.6 %
3년 이상	62	50.4 %
총계	123	100 %

〈표 III-5〉 전체교육청 NIE 관련 업무 시행 기간

	사례 수	백분율
1년 미만	20	14.8 %
1년 이상-2년 미만	16	11.9 %
2년 이상-3년 미만	30	22.2 %
3년 이상	69	51.1 %
총계	135	100 %

(2) 교육청 내 NIE 담당 부서 유무 및 분포

시·도교육청의 75.0%, 교육지원청의 50.4% 및 전체 교육청의 과반 이상인 52.6%가 NIE와 주로 관련되어 있거나 NIE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시·도교육청 NIE 담당 부서 유무

	사례 수	백분율
있다	9	75.0 %
없다	3	25.0 %
총계	12	100 %

〈표 III-7〉 교육지원청 NIE 담당 부서 유무

	사례 수	백분율
있다	62	50.4 %
없다	61	49.6 %
총계	123	100 %

〈표 III-8〉 전체 교육청 NIE 담당 부서 유무

	사례 수	백분율
있다	71	52.6 %
없다	64	47.4 %
총계	135	100 %

NIE 관련 업무는 아래의 <표 III-9>, <표 III-10>, <표 III-1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청 내의 교수학습지원,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운영, 학교경영, 창의인성 관련 부서 등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교육청에서는 NIE 관련 업무가 특정한 부서에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각 교육청의 여건에 맞게 여러 관련 부서에 임의적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9> 시·도교육청 NIE 담당 부서 분포

	사례 수	백분율
교수학습지원 관련 부서	3	25.0 %
교육과정 관련 부서	2	16.7 %
교육지원 관련 부서	0	0.00 %
기타(학교운영, 학교경영, 창의인성 등)	7	58.3 %
총계	12	100 %

<표 III-10> 교육지원청 NIE 담당 부서 분포

	사례 수	백분율
교수학습지원 관련 부서	23	18.7 %
교육과정 관련 부서	31	25.2 %
교육지원 관련 부서	40	32.5 %
기타(학교운영, 학교경영, 창의인성 등)	29	23.6 %
총계	123	100 %

<표 III-11> 전체 교육청 NIE 담당 부서 분포

	사례 수	백분율
교수학습지원 관련 부서	26	19.3 %
교육과정 관련 부서	33	24.4 %
교육지원 관련 부서	40	29.6 %
기타(학교운영, 학교경영, 창의인성 등)	36	26.7 %
총계	135	100 %

(3) NIE 관련 배너 및 홈페이지 유무

홈페이지나 관련 배너의 존재는 학생이나 교육 관련자로 하여금 NIE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NIE 관련 배너나 홈페이지 등이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반면,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신문읽기를 활용하여 교과 및 창의, 인성교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각의 창”이라는 사이버 독서방 및 e-NIE 중심의 프로그램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함으로써 소속 학교 및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NIE 운영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12〉 시·도교육청 NIE 관련 배너 및 홈페이지 유무

	사례 수	백분율
있다	1	8.3 %
없다	11	91.7 %
총계	12	100 %

〈표 III-13〉 교육지원청 NIE 관련 배너 및 홈페이지 유무

	사례 수	백분율
있다	1	0.8 %
없다	122	99.2 %
총계	123	100 %

〈표 III-14〉 전체 교육청 NIE 관련 배너 및 홈페이지 유무

	사례 수	백분율
있다	2	1.5 %
없다	133	98.5 %
총계	135	100 %

2) 투입 지표

(1) NIE 관련 예산(1년 기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NIE 관련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 비율은 시·도교육청에서 75%, 교육지원청에서는 11.4%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예산이 할당되어 있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평균은 약 78,066,667원, 교육지원청 평균은 약 53,942,857원, 전체 교육청 평균은 약 56,808,695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예산들은 적게는 700,000원에서 많게는 600,000,000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A교육청은 NIE 예산을 독서교육 예산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B교육청은 시 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순수하게 NIE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보고된 액수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5〉시·도교육청 예산 유무

	사례 수	백분율
있다	9	75.0 %
없다	3	25.0 %
총계	12	100 %

〈표 III-16〉교육지원청 예산 유무

	사례 수	백분율
있다	14	11.4 %
없다	109	88.6 %
총계	123	100 %

〈표 III-17〉전체교육청 예산 유무 및 액수 분포

	사례 수	백분율
있다	23	17.0 %
없다	112	83.0 %
총계	135	100 %

〈표 III-18〉 교육청 간 예산 평균

교육청 예산 평균	예산
시·도교육청(9개) 평균	약 78,066,667원
교육지원청(14개) 평균	약 53,942,857원
전체 교육청(23개) 평균	약 56,808,695원

(2) 교류협력 기관 유무

교류협력 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교육청은 NIE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사결과, 신문사 등과 같은 교류협력 기관과의 연계율에 있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약 41.7%로 나타났으나 교육지원청은 약 11.4%에 그쳤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언론재단이나 신문협회와 같은 기관은 물론, 해당 지역 신문사와의 연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III-19〉 시·도교육청 교류협력 기관 유무

	사례 수	백분율
있다	5	41.7 %
없다	7	58.3 %
총계	12	100 %
시·도교육청 교류협력 기관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전북일보, 충청리뷰		

〈표 III-20〉 교육지원청 교류협력 기관 유무

	사례 수	백분율
있다	14	11.4 %
없다	109	88.6 %
총계	123	100 %
교육지원청 교류협력 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경남신문, 전북일보, 전남일보, 담양곡성타임즈, 지역신문, 거제신문사, 보은신문, 성주신문사, 설악신문사, 청양신문		

〈표 III-21〉 전체 교육청 교류협력 기관 유무

	사례 수	백분율
있다	19	14.1 %
없다	116	85.9 %
총계	135	100 %

3) 과정 지표

(1)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문 발송

공문의 발송현황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교육청 간의, 그리고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의 소통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시·도교육청은 NIE 관련 공문 발송 횟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III-22〉 시·도교육청 공문 발송 여부 및 횟수 분포

	사례 수	백분율
있다	8	66.7 %
없다	4	33.3 %
총계	12	100 %

발송 횟수	시·도교육청 수	%
1-2회	1	12.5 %
3-4회	3	37.5 %
5-6회	1	12.5 %
7회 이상	3	37.5 %
총계	8	100 %

〈표 III-23〉 교육지원청 공문 발송 여부 및 횟수 분포

	사례 수	백분율
있다	71	57.7 %
없다	52	42.3 %
총계	123	100 %

발송 횟수	교육지원청 수	%
1-2회	25	35.2 %
3-4회	23	32.4 %

5-6회	13	18.3 %
7회 이상	10	14.1 %
총계	71	100 %

〈표 III-24〉 전체 교육청 공문 발송 여부 및 횟수 분포

	사례 수	백분율
있다	79	58.5 %
없다	56	41.5 %
총계	135	100 %

발송 횟수	전체 교육청 수	%
1-2회	26	32.9 %
3-4회	26	32.9 %
5-6회	14	17.7 %
7회 이상	13	16.5 %
총계	79	100 %

(2) NIE 관련 연구학교 현황

조사결과, 교육청 소속 연구학교는 각각 시·도교육청에서 16.7%, 교육지원청에서 8.9%로 시·도교육청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나 전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는 10%에도 못 미치므로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청별로도 NIE 관련 연구학교 수에 있어서 0개에서 13개로 그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교육청 당 평균 1.5개씩, 교육지원청은 평균 2.82개씩 지정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는 교육청 당 약 2.62개의 연구학교를 가지고 있었다.

〈표 III-25〉 시·도교육청 연구학교 분포

	사례 수	백분율
있다	2	16.7 %
없다	10	83.3 %
총계	12	100 %

〈표 III-26〉 교육지원청 연구학교 분포

	사례 수	백분율
있다	11	8,9 %
없다	112	91,1 %
총계	123	100 %

〈표 III-27〉 전체 교육청 연구학교 분포

	사례 수	백분율
있다	13	9,6 %
없다	122	90,4 %
총계	135	100 %

〈표 III-28〉 전체 교육청 연구학교 평균

교육청 연구학교 평균	평균 개수
시·도교육청(2개) 평균	교육청 당 약 1,5개
교육지원청(11개) 평균	교육청 당 약 2,82개
전체 교육청(13개) 평균	교육청 당 약 2,62개

(3) NIE 관련 시범학교 현황

시범학교도 연구학교와 마찬가지로 각각 25%, 8.13%로 시·도교육청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나 전체적으로는 9.6%로 매우 적은 편이다. 교육청별로 NIE 관련 시범학교 수는 0개에서 6개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교육청 당 평균 4.33개씩, 교육지원청은 평균 2.10개씩 지정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교육청 당 약 2.62개의 연구학교를 가지고 있었다.

〈표 III-29〉 시·도교육청 시범학교 분포

	사례 수	백분율
있다	3	25,0 %
없다	9	75,0 %
총계	12	100 %

〈표 III-30〉 교육지원청 시범학교 분포

	사례 수	백분율
있다	10	8.1 %
없다	113	91.9 %
총계	123	100 %

〈표 III-31〉 전체 교육청 시범학교 분포

	사례 수	백분율
있다	13	9.6 %
없다	122	90.4 %
총계	135	100 %

〈표 III-32〉 전체 교육청 시범학교 평균

교육청 시범학교 평균	평균 개수
시·도교육청(3개) 평균	교육청 당 약 4.33개
교육지원청(10개) 평균	교육청 당 약 2.10개
전체 교육청(13개) 평균	교육청 당 약 2.62개

(4) NIE 관련 연수과정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NIE 연수과정을 살펴보면, 시·도교육청의 약 33%(4개 시·도교육청)는 관련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은 3.3%로 매우 미미한 편이었다. 연수과정은 많게는 4회까지 운영되고 있었으며 연수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만을 대상으로 보면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당 2.25회, 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당 1.50회, 전체적으로는 교육청 당 평균 1.88회 연수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표 III-33〉 시·도교육청 NIE 관련 연수과정 실시 여부

	사례 수	백분율
있다	4	33.3 %
없다	8	66.7 %
총계	12	100 %

〈표 III-34〉 교육지원청 NIE 관련 연수과정 실시 여부

	사례 수	백분율
있다	4	3.3 %
없다	119	96.7 %
총계	123	100 %

〈표 III-35〉 전체 교육청 NIE 관련 연수과정 실시 여부

	사례 수	백분율
있다	8	5.9 %
없다	127	94.1 %
총계	135	100 %

〈표 III-36〉 전체 교육청 NIE 관련 연수과정 실시 횟수 평균

교육청 연수과정 평균	평균 횟수
시·도교육청(4개) 평균	교육청 당 약 2.25 회
교육지원청(4개) 평균	교육청 당 약 1.50 회
전체 교육청(8개) 평균	교육청 당 약 1.88 회

(5) NIE 관련 행사 및 세미나

NIE 관련 행사 및 세미나 활동 실시 여부 역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각 0%, 4.1%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 시·도교육청에서는 NIE 관련 행사 및 세미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도 단지 5개의 교육청만이 NIE 관련 행사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다.

〈표 III-37〉 시·도교육청 관련 행사 및 세미나 실시 여부

	사례 수	백분율
있다	0	0 %
없다	12	100 %
총계	12	100 %

〈표 III-38〉 교육지원청 관련 행사 및 세미나 실시 여부

	사례 수	백분율
있다	5	4.1 %
없다	118	95.9 %
총계	123	100 %

〈표 III-39〉 전체 교육청 관련 행사 및 세미나 분포

	사례 수	백분율
있다	5	3.7 %
없다	130	96.3 %
총계	135	100 %

〈표 III-40〉 전체 교육청 관련 행사 및 세미나 실시 횟수 평균

관련 행사 및 세미나 실시 횟수	평균 횟수
교육지원청(5개) 평균	교육청 당 약 1.20회

(6) NIE 관련 교재 발행

전체 시·도교육청에서는 25%가 NIE 관련 교재를 발행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에서의 교재 발행은 단지 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발행은 시·도교육청에서는 평균 3회, 교육지원청은 평균 2.67회, 전체적으로는 평균 2.83회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III-41〉 시·도교육청 NIE 관련 교재 발행 여부

	사례 수	백분율
있다	3	25.0 %
없다	9	75.0 %
총계	12	100 %

〈표 III-42〉 교육지원청 NIE 관련 교재 발행 여부

	사례 수	백분율
있다	3	2.4 %
없다	120	97.6 %
총계	123	100 %

〈표 III-43〉 전체 교육청 NIE 관련 교재 발행 여부

	사례 수	백분율
있다	6	4.4 %
없다	129	95.6 %
총계	135	100 %

〈표 III-44〉 전체 교육청 NIE 관련 교재 발행 횟수 평균

관련 교재 발행 횟수	평균 횟수
시·도교육청(3개) 평균	교육청 당 약 3.00 회
교육지원청(3개) 평균	교육청 당 약 2.67 회
전체 교육청(6개) 평균	교육청 당 약 2.83 회

(7) NIE 관련 학생 대상 행사(1년 기준)

시·도교육청에서는 2개 교육청(16.7%), 교육지원청에서는 10개 교육청(8.1%)이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시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실시 횟수 역시 교육청 당 평균 1회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45〉 시·도교육청 NIE 관련 학생 대상 행사 여부

	사례 수	백분율
있다	2	16.7 %
없다	10	83.3 %
총계	12	100 %

〈표 III-46〉 교육지원청 NIE 관련 학생 대상 행사 여부

	사례 수	백분율
있다	10	8.1 %
없다	113	91.9 %
총계	123	100 %

〈표 III-47〉 전체 교육청 NIE 관련 학생 대상 행사 여부

	사례 수	백분율
있다	12	8.9 %
없다	123	91.1 %
총계	135	100 %

〈표 III-48〉 전체 교육청 NIE 관련 학생 대상 행사 평균 횟수

관련 교재 발행 횟수	평균 횟수
시·도교육청(2개) 평균	교육청 당 약 1.00 회
교육지원청(10개) 평균	교육청 당 약 1.00 회
전체 교육청(12개) 평균	교육청 당 약 1.00 회

(8) NIE 관련 연수 및 행사 홍보 형태

NIE 관련 연수나 행사 홍보는 시·도교육청의 41.6%, 교육지원청의 69.8%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홍보방법 역시 대부분 공문에 치우쳐 확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NIE 연수나 행사에 대한 보다 다양한 유형의 홍보방법이 요망된다.

〈표 III-49〉 시·도교육청 NIE 관련 행사 홍보 유형

	사례 수	백분율
홈페이지에 NIE 강좌 소개 및 지속적 업데이트	1	8.3 %
NIE 강좌 서비스 제공 및 전단지 배포	0	0.00 %
지역 언론사 등 외부매체 홍보	2	16.7 %
기타(자체연수 등)	4	33.4 %
실시하지 않음	5	41.6 %
총계	12	100 %
기타 홍보 형태		
공문		

〈표 III-50〉 교육지원청 NIE 관련 행사 홍보 유형

	사례 수	백분율
홈페이지에 NIE 강좌 소개 및 지속적 업데이트	4	3.3 %
NIE 강좌 서비스 제공 및 전단지 배포	6	4.9 %
지역 언론사 등 외부매체 홍보	7	5.7 %
기타(자체연수 등)	20	16.3 %
실시하지 않음	86	69.8 %
총계	123	100 %

기타 홍보 형태

협조요청 공문 발송, 도교육청 주관 MOU 체결 후 교육지원청에 연계, 시교육청에서 주관 시 홍보 지원

〈표 III-51〉 전체 교육청 NIE 관련 행사 홍보 유형

	사례 수	백분율
홈페이지에 NIE 강좌 소개 및 지속적 업데이트	5	3.7 %
NIE 강좌 서비스 제공 및 전단지 배포	6	4.4 %
지역 언론사 등 외부매체 홍보	9	6.6 %
기타(자체연수 등)	25	18.3 %
실시하지 않음	91	67.0 %
총계	136	100 %

4) 결과 지표

(1)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NIE 관련 교사 연구회

NIE 교사 연구회의 결성은 주로 교육청의 방침이나 추진방향과 맞물려 일어나는 일이 많으므로 NIE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NIE 관련 교사 연구회는 각각 시·도교육청의 41.7%, 교육지원청의 11.4%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연구회가 있는 교육청의 연구회 수는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당 1.20개, 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당 1.79개로 전체적으로는 교육청 당 1.63개로 분포해 있었다.

〈표 III-52〉 시·도교육청 NIE 관련 교사 연구회 분포

	사례 수	백분율
있다	5	41.7 %
없다	7	58.3 %
총계	12	100 %

〈표 III-53〉 교육지원청 NIE 관련 교사 연구회 분포

	사례 수	백분율
있다	14	11.4 %
없다	109	88.6 %
총계	123	100 %

〈표 III-54〉 전체 교육청 NIE 관련 교사 연구회 분포

	사례 수	백분율
있다	19	14.1 %
없다	116	85.9 %
총계	135	100 %

〈표 III-55〉 전체 교육청 NIE 관련 교사 연구회 평균 개수

교사 연구회 평균	평균 횟수
시·도교육청(5개) 평균	교육청 당 약 1.20 회
교육지원청(14개) 평균	교육청 당 약 1.79 회
전체 교육청(19개) 평균	교육청 당 약 1.63 회

(2) NIE 관련 연수 및 행사 평가 형태

조사결과, NIE 관련 연수나 행사가 끝난 후 시·도교육청(58.4%) 및 교육지원청(88%)은 모두 과반 이상이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 개선이 요망된다.

〈표 III-56〉 시·도교육청 평가 유형 분포

	사례 수	백분율
강좌 운영 중 수시로 수강생 의견 접수	1	8.3 %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오프라인)	2	16.7 %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온라인)	1	8.3 %
기타	1	8.3 %
실시하지 않음	7	58.4 %
총계	12	100 %

〈표 III-57〉 교육지원청 평가 유형 분포

	사례 수	백분율
강좌 운영 중 수시로 수강생 의견 접수	4	3.2 %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오프라인)	9	7.2 %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온라인)	0	0.00 %
기타	2	1.6 %
실시하지 않음	110	88.0 %
총계	125	100 %

〈표 III-58〉 전체 교육청 분포

	사례 수	백분율
강좌 운영 중 수시로 수강생 의견 접수	5	3.6 %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오프라인)	11	8.0 %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온라인)	1	0.7 %
기타	3	2.2 %
실시하지 않음	117	85.5 %
총계	137	100 %

(3) NIE 업무 운영 시 어려운 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NIE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운영에 있어서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예산 문제 및 업무 과중, 인력 부족, 학교의 무관심 등의 문제들도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표 III-59〉 시·도교육청 NIE 관련 어려운 점

	사례 수	백분율
예산 마련	2	16.7 %
관련 시설 및 공간 마련	0	0.00 %
강사 고용 및 관리	1	8.3 %
NIE 프로그램의 질 관리	6	50.00 %
기타	3	25.00 %
총계	12	100 %

시·도교육청에서의 기타 어려운 점

업무과중(3)

〈표 III-60〉 교육지원청 NIE 관련 어려운 점

	사례 수	백분율
예산 마련	25	20.3 %
관련 시설 및 공간 마련	6	4.9 %
강사 고용 및 관리	14	11.4 %
NIE 프로그램의 질 관리	27	21.9 %
기타	51	41.5 %
총계	123	100 %

시·도교육청에서의 기타 어려운 점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도와줄 것이 없음.
- 각 학교에서 NIE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 중이어서 지원청에서는 NIE 관련업무가 꼭 필요하지 않음
- 업무과다, 업무담당 인력 부족, 시간부족
- 학교의 호응도가 낮음. 학교의 무관심.
- NIE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시교육청에서 관할함.
- 학교재량 문제이므로 간섭하기 어려움.
- 교육지원청 내 NIE 관련 업무담당 인력 지원이 필요함.
- 업무과중이 우려되므로 업무가 정확하게 나누어져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전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학교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후 NIE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임.
- 현재 NIE 업무 담당자가 없고 업무도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예산과 연수 등이 없음.
- 본 지원청 관할 학교 학생의 생활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해서 NIE 실행 자체가 어려움.
- 시범학교를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학교가 거의 없음.

〈표 III-61〉 전체 교육청 NIE 관련 어려운 점

	사례 수	백분율
예산 마련	27	20.0 %
관련 시설 및 공간 마련	6	4.4 %
강사 고용 및 관리	15	11.1 %
NIE 프로그램의 질 관리	33	24.4 %
기타	54	40.1 %
총계	135	100 %

3. 분석결과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 12개 시·도교육청과 123개 교육지원청, 총 135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에 걸쳐 포괄적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설문조사 요약

첫째, ‘기본 사항’ 항목을 조사결과에 비추어 살펴보면, 각 교육청의 과반 이상은 3년 이상 NIE 또는 NIE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교육청 내 NIE 담당 부서 역시 교육청의 과반 이상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담당 부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보다는, 교육청 별로 제각기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청의 NIE 활성화와 접근성의 향상을 위하여 요구되는 관련 홈페이지나 배너 역시 교육청 전체를 통틀어 2개를 밑돌 정도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 지표’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NIE 관련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75%는 관련 예산을 할당하고 있었으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약 11%만이 관련 예산을 설정해 놓고 있었다. 또한 교육청 간 예산 차이도 크고, 몇몇 교육청은 다른 예산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예산의 정확한 파악은 어려웠다. 교류협력 기관의 유무 역시 시·도교

육청에서는 약 42%가 교류협력 기관이 있었으나 교육지원청은 약 11% 정도만이 교류협력 기관이 있었으며 이러한 교류협력 기관은 주로 언론 재단이나 신문협회, 그리고 각 지역 신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과정 지표’의 NIE 관련 공문 발송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모두 반수 이상 NIE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IE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연구학교, 시범학교 지정 여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사대상 NIE 연수과정이나 행사 및 세미나 여부도 시·도교육청은 각각 33%, 0%, 교육지원청은 각각 3.25%, 3.70%로 둘 다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IE 관련 교재 발행 여부 역시 전체적으로 4.4%에 머무를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관련 행사도 전체 교육청의 8.9%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러한 행사 홍보 유형도 단순히 공문 발송과 같은 획일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과 지표’의 NIE 관련 교사 연구회 여부를 살펴보면, 시·도교육청의 41.7%, 교육지원청의 11.4%가 교사 연구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교육청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교육청의 약 14%만이 교사 연구회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NIE 관련 프로그램 후 결과를 파악하고 다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바탕이 되는 연수나 행사 후 평가 역시 전체 교육청의 약 87%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NIE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특히 프로그램의 질 관리, 예산, 업무 과다, 학교의 낮은 호응도, 업무 역할 분담의 불분명 등이 그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2) 제언

이 장에서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NIE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NIE 업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교육청 내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NIE의 교육적 효과는 지금까지 명백하게 증명되어 왔으며, 교육청에서도 수년에 걸쳐서 NIE 관련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러한 NIE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NIE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업무 지원, 그리고 업무의 효과적인 할당에 있어서는 교육청 내 혹은 교육청간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NIE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더하여 ‘NIE 실시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의 과중한 업무 또한 NIE 관련 지원 업무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역할 분담과 담당 인력 보강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NIE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NIE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확장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NIE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은 누구나 활용하기 쉽고, 신문 기사 자료를 검색하여 읽거나 더 나아가 신문 기사를 스스로 작성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NIE를 위한 유용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교육적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 e-NIE는 이러한 인터넷과 NIE의 조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NIE 교육에 대한 예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교육청 별로 예산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교육청에서도 예산 부족을 NIE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NIE의 교육적 효과가 지금까지 분명하게 드러나 왔으며, 또한 이러한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나 관련 행사 실시 등이 필수적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언론사나 언론진흥재단과 같은 관련 기관과의 면밀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교육청 대상 조사결과, 이러한 교류협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를 개선한다면 교육 자료로 신문 기사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 등 협력기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언론사들이 독자나 일반 대중을 위해 많은 NIE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따라 협력을 통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청은 더욱 많은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의 지정을 통하여 NIE를 널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NIE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단위학교의 실천사례를 바탕으로 더 나은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해당 학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NIE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의 NIE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NIE 관련 연수나 행사, 교재 발행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NIE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NIE는 그 교육적 효과에 비하여 NIE에 대한 인식이나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한 편이다. NIE 연수를 통하여 교사들에게는 NIE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학생들에게는 각종 관련 행사를 통해서 흥미를 갖게 하며, 더 나아가 교과 시간은 물론 생활 속에서 신문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갖추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홍보 공문 발송은 물론 각종 관련 홍보물이나 교재의 발행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째, 교사 연구회의 활성화 및 연구회 지원을 통하여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NIE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교사 연구회는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한 교사 간의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료 교사 대상의 연수 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수업 개선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NIE 프로그램이나 연수 등의 활동이나 단위학교 지원에 대한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NIE에 대한 연수나 행사 등을 기획하고 실시하는 것에 이어 참가자로부터 의견을 묻고 그것을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단위학교의 지원에 있어서는 단위학교로부터 NIE와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다음 프로그램이나 지원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V. NIE 거점학교 현황

1. NIE 거점학교 현황

1) 설문조사의 대상

NIE 거점학교는 104개의 NIE 선도학교와 16개의 NIE 연구학교로 구분된다.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이메일 및 리서치 기관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98개의 NIE 선도학교와 7개의 NIE 연구학교로 총 103개 NIE 거점학교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전국의 NIE 거점학교를 기준으로 약 85.8%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설문에 응한 학교들을 모두 나열하자면 다음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설문 응답률 및 설문에 응답한 NIE 거점학교

	전체	사례 수	백분율
초등학교	37	31	83.8 %
중학교	34	29	85.3 %
고등학교	47	42	89.4 %
특수학교	2	1	50.0 %
총계	120	103	85.8 %

	연구학교	사례 수	백분율	선도학교	사례 수	백분율
초등학교	6	1	16.7 %	31	30	96.8 %
중학교	6	4	66.7 %	28	25	89.3 %
고등학교	4	2	50.0 %	43	40	93.0 %
특수학교	0	0	—	2	1	50.0 %
총계	16	7	43.8 %	104	96	92.3 %

		학교명	응답 수
NIE 연구학교	초등학교	금계초등학교	1
	중학교	만월중학교, 호성중학교, 담양중학교, 감포중학교	4
	고등학교	송호고등학교, 여량고등학교	2
NIE 선도학교	초등학교	갈현초등학교, 고삼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남읍초등학교, 냉정초등학교, 대구금계초등학교, 대전성룡초등학교, 대중초등학교, 덕수초등학교, 독정초등학교, 동계초등학교,	30

		동부초등학교, 동신초등학교, 둔내초등학교, 무거초등학교, 보수초등학교, 부산당감초등학교, 부산화랑초등학교, 시랑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안현초등학교, 양평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 용수초등학교, 임실초등학교, 제주덕수초등학교, 지행초등학교, 평택안일초등학교, 홍연초등학교, 화흥초등학교	
	중학교	가원중학교, 경희여자중학교, 광성중학교, 광시중학교, 구례동중학교, 기흥중학교, 남면중학교, 덕계중학교, 동화중학교, 면목중학교, 반송여자중학교, 백운중학교, 상지여자중학교, 신탄진중학교, 싹뿔여자중학교, 안용중학교, 오송중학교, 은산중학교, 인천진산중학교, 장안중학교, 정원여자중학교, 창덕여자중학교, 한내여자중학교, 회덕중학교, 학교명 미기재(1)	25
	고등학교	강일여자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경남외국어고등학교, 경산여자고등학교, 경상사대부설고등학교, 관악고등학교, 광양고등학교, 근화여자고등학교, 남원서진여고등학교, 남지고등학교, 노원고등학교, 대전기술정보학교, 덕신고등학교, 동암고등학교, 백제고등학교, 부여여자고등학교, 삼교고등학교, 상계고등학교, 서강고등학교,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송현여자고등학교, 송문고등학교, 신광여자고등학교, 싹뿔여자고등학교, 안산동산고등학교, 오산고등학교, 오천고등학교, 이리여자고등학교, 이문고등학교, 이서고등학교, 전북대부설고등학교, 전주 신흥고등학교, 정명정보고등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창원문성고등학교, 청구고등학교, 충원고등학교, 칠원고등학교,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횡성고등학교	40
	특수학교	한빛맹학교	1
	합계		103

2) 설문조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NIE 거점학교에 대한 지원 양상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조사범위와 내용을 설정해 보았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기본 사항, 투입(input)지표, 과정(process)지표, 결과(output)지표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IV-2〉 질문지 내용 구성

기관 관리자	기본사항	교원수, 학년별 주당 시수	2문항	총 19문항
	투입지표	연수 수강 교원, 수업 교원, 종합일간지 구독 여부, 어린이신문 구독 여부(초등학교), 담당 업무 유형, 예산 유무, 예산 지원	7문항	
	과정지표	방과후활동 개설 여부, 방과후활동 강사, 교육과정 할당 학년, 교육과정 할당 시간, 실시 시간, 신문 준비	6문항	
	결과지표	교사 조직 유무, 관련행사, 평가방법, 운영 시 어려운 점	4문항	

2. NIE 거점학교 담당자 설문조사 분석

1) 기본사항

(1) 교원 수

응답학교의 교원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교원 수는 41명으로 조사되었다. 각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평균 교원 수는 35명, 중학교는 33명, 고등학교는 56명으로 조사되어 고등학교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 평균 교원 수

	평균 교원 수
초등학교	35,0
중학교	32,6
고등학교	55,5
특수학교	40,0
평균	40,8

(2) 학년별 주당 시수

①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학년별 주당 시수는 22시간에서 29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년에 따라 주당 시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 초등학교 학년별 주당 시수

	평균 주당 시수
초1	22,13
초2	22,42
초3	26,61
초4	26,87

초5	29,39
초6	29,48

② 중학교

중학교의 평균 주당 시수는 약 28시간으로 학년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중학교 학년별 주당 시수

	평균 주당 시수
중1	28,15
중2	28,40
중3	28,19

③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평균 주당 시수는 29시간에서 31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 주당 시수가 약 31시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고등학교 학년별 주당 시수

	평균 주당 시수
고1	29,16
고2	29,72
고3	31,19

2) 투입지표

(1) NIE 연수 수강 교원

NIE 연수를 수강한 교원 수를 조사한 결과, 총 890명으로 응답학교 전체 교원의 20.2%가 NIE 연수를 수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NIE 연수 수강 교원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 급은 초등학교(23.1%)로 조사되었으며, 중학교(21.6%), 고등학교(18.4%)로 갈수록 비율이 낮아졌다. 1개의 특수학교는

12.5%로 조사되어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NIE 연수를 수강한 교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NIE 연수 수강 교원

	총 교원 수	사례 수	백분율
초등학교	1086	251	23.1 %
중학교	946	204	21.6 %
고등학교	2332	430	18.4 %
특수학교	40	5	12.5 %
총계	4,404	890	20.2 %

(2) NIE 수업 교원

응답학교에서 NIE 수업 실시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학교의 99%가 ‘NIE 수업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초등학교(96.8%)를 제외하고 중학교(100.0%), 고등학교(100.0%)에서는 NIE 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8〉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수업 교원 유무

	초		중		고		특수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있음	30	96.8	29	100.0	42	100.0	1	100.0
없음	1	3.2	0	0	0	0	0	0
총계	31	100.0	29	100.0	42	100.0	1	100.0

〈표 IV-9〉 전체 거점학교 NIE 수업 교원 유무

	사례 수	백분율
있음	102	99.0 %
없음	1	1.0 %
총계	103	100.0 %

(3) 종합일간지 구독 여부(중복응답 가능)

응답학교에서 종합일간지 구독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직원용 종합일간지(전국지)를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었고(36.2%) 교직원용 종합일간지(지방지)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28.0%). 반면 학생용 종합일간지(전국지, 지방지)는 전체의 35%를 차지해 교사용 종합일간지(전국지, 지방지)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아도 이러한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교직원용 종합일간지(지방지)가 31.3%, 중학교는 교직원용 종합일간지(전국지)가 39.3%, 고등학교는 교직원용 종합일간지(전국지)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0〉 초, 중, 고, 특수학교 종합일간지 구독 여부

	초		중		고		특수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종합일간지(전국지) 교직원용	21	31,3	24	39,3	33	37,5	1	50,0
종합일간지(지방지) 교직원용	22	32,8	19	31,1	20	22,7	0	0
종합일간지(전국지) 학생용	9	13,4	7	11,5	20	22,7	1	50,0
종합일간지(지방지) 학생용	15	22,4	11	18,0	15	17,0	0	0
총계	67	100,0	61	100,0	88	100,0	2	100,0

〈표 IV-11〉 전체 거점학교 종합일간지 구독 여부

	사례 수	백분율
종합일간지(전국지) 교직원용	79	36,2 %
종합일간지(지방지) 교직원용	61	28,0 %
종합일간지(전국지) 학생용	37	17,0 %
종합일간지(지방지) 학생용	41	18,8 %
총계	218	100,0 %

(4) 어린이신문 구독 여부(초등학교만 응답)

전체 응답학교 중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어린이신문 구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신문을 구독한다’고 응답한 초등학교는 51.6%, ‘어린이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초등학교는 48.4%로 조사되었다. NIE 거점학교(초등학교)에서 어린이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학교와 구독하지 않는 학교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2〉 어린이신문 구독 여부

	초등(전체)	
	사례 수	백분율
구독함	16	51.6 %
구독하지 않음	15	48.4 %
총계	31	100.0 %

(5) NIE 담당업무 유형

NIE 담당 교원의 업무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학교 중 ‘본교 소속 교원이 진행하는 NIE 방과 후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47.9%), ‘NIE 관련 특별활동 진행’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26.0%). 반면 학교업무 분장으로써 ‘NIE 행정업무 처리’나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는 각각 15.8%, 10.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본교 소속 교원이 진행하는 NIE 방과 후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40.9%), ‘NIE 행정업무 처리’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지만(27.3%),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본교 소속 교원이 진행하는 NIE 방과 후 활동’ 다음으로 ‘NIE 관련 특별활동 진행’이 높게 나타났다(중 22.2%, 고 35.7%).

〈표 IV-13〉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담당업무 유형

	초		중		고		특수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학교업무 분장: 행정업무 처리	12	27.3	5	11.1	6	10.7	0	0
NIE 관련 특별활동 진행	8	18.2	10	22.2	20	35.7	0	0
본교 교원이 진행하는	18	40.9	25	55.6	26	46.4	1	100

NIE 방과 후 활동								
기타	6	13.6	5	11.1	4	7.1	0	0
총계	44	100.0	45	100.0	56	100.0	1	100.0

〈표 IV-14〉 전체 거점학교 NIE 담당업무 유형

	사례 수	백분율
학교업무 분장: 행정업무 처리	23	15.8 %
NIE 관련 특별활동 진행	38	26.0 %
본교 교원이 진행하는 NIE 방과 후 활동	70	47.9 %
기타	15	10.3 %
총계	146	100.0 %

(6) NIE 예산 유무

NIE 예산이 할당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중 NIE 예산이 있는 경우가 70.6%로 조사되었다. 중학교(65.6%)와 고등학교(69.0%)도 NIE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예산을 할당하지 않는 경우가 77.4%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15〉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예산 유무

	초		중		고		특수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예산 있음	24	22.6	19	65.6	29	69.0	1	100
예산 없음	7	77.4	10	34.5	13	31.0	0	0
총계	31	100	29	100	42	100	1	100

〈표 IV-16〉 전체 거점학교 NIE 예산 유무

	사례 수	백분율
예산 있음	72	70.6 %
예산 없음	30	29.4 %
총계	102	100 %

〈표 IV-17〉 NIE 예산 범위

예산	응답	%
1,000,000 미만	5	4.9 %
1,000,000 이상 3,000,000 미만	10	9.7 %
3,000,000 이상 5,000,000 미만	12	11.7 %
5,000,000 이상 10,000,000 미만	39	37.9 %
10,000,000 이상	6	5.8 %
미기재	31	30.1%
총계	103	100.0%

(7) NIE 예산 지원

NIE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NIE 관련재단 또는 협회에서 지원받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76.9%), 학교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13.8%),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5.4%)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부모 및 수요자가 부담하는 경우(0.8%)는 가장 낮게 조사되어 학부모나 교육수요자를 통하여 직접 NIE 예산을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NIE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는 2.3%에 그쳤다. NIE 예산은 NIE 관련재단 또는 협회, 학교 자체 예산 그리고 교육청 지원으로 대다수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V-18〉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예산 지원

	초		중		고		특수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지원받지 않음	2	4.9	1	3.0	0	0	0	0
교육청	3	7.3	1	3.0	3	5.5	0	0
학교 자체 예산	6	14.6	2	6.1	10	18.2	0	0
학부모 및 수요자 부담	0	0	0	0	1	1.8	0	0
NIE 관련 재단 또는 협회	29	70.7	29	87.9	41	74.5	1	100
기타	1	2.4	0	0	0	0	0	0
총계	41	100.0	33	100.0	55	100.0	1	100.0

〈표 IV-19〉 전체 거점학교 NIE 예산 지원

	사례 수	백분율
지원받지 않음	3	2.3 %
교육청	7	5.4 %
학교 자체 예산	18	13.8 %
학부모 및 수요자 부담	1	0.8 %
NIE 관련재단 또는 협회	100	76.9 %
기타	1	0.8 %
총계	130	100.0 %

2) 과정 지표

(1) 방과 후 NIE 활동 개설 여부

방과 후 NIE 활동이 개설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학교의 대다수 93.1%가 ‘방과 후 NIE 활동이 개설되어 있음’으로 답하였다. 중학교에서 방과 후 NIE 활동이 개설되는 비율이 9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는 93.5%, 고등학교는 88.1%로 각각 조사되었다.

〈표 IV-20〉 초, 중, 고, 특수학교 방과 후 NIE 활동 개설 여부

	초		중		고		특수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개설되어 있음	29	93.5	28	96.6	37	88.1	1	100.0
개설되어 있지 않음	2	6.5	1	3.4	4	9.5	0	0
총계	31	100	29	100	41	100.0	1	100.0

〈표 IV-21〉 전체 거점학교 방과 후 NIE 활동 개설 여부

	사례 수	백분율
개설되어 있음	95	93.1 %
개설되어 있지 않음	7	6.9 %
총계	102	100.0 %

(2) 방과 후 NIE 활동 강사(중복응답 가능)

방과 후 NIE 활동 강사는 크게 본교 소속 교사와 외부 강사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 응답 중 69.1%가 본교 소속의 교사가 방과 후 NIE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외부 강사가 방과 후 NIE 활동을 담당하는 경우는 30.9%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양상이 학교 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본교 교사가 방과 후 NIE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72.5%를 차지하면서, 중학교(67.5%), 고등학교(68.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2〉 초, 중, 고, 특수학교 방과 후 NIE 활동 강사

	초		중		고		특수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본교 교사	29	72,5	27	67,5	39	68,4	1	50
외부 강사	11	27,5	13	32,5	18	31,6	1	50
총계	40	100,0	40	100,0	57	100,0	2	100,0

〈표 IV-23〉 전체 거점학교 방과 후 NIE 활동 강사

	사례 수	백분율
본교 교사	96	69,1 %
외부 강사	43	30,9 %
총계	139	100,0 %

(3) NIE 교육과정 할당 학년

① 초등학교

NIE가 교육과정에 할당되어 있는 학년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NIE가 교육과정에 할당되어 있는 경우보다 할당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초등학교 1학년(41.9%), 2학년(45.2%)에도 NIE가 교육과정에 정식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51.6%)에서 초등학교 4학년(74.2%)으로 올라가면서 교육과정에

할당되어 운영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에 NIE 교육과정이 할당되어 운영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90.3%), 6학년은 그 다음으로 높게 조사되었다(80.6%).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는 NIE 교육과정 할당 비율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IV-24〉 초등학교 NIE 할당 학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할당되어 있음	13	41.9	14	45.2	16	51.6	23	74.2	28	90.3	25	80.6
할당되어 있지 않음	18	58.1	17	54.8	15	48.4	8	25.8	3	9.7	6	19.4
총계	31	100	31	100	31	100	31	100	31	100	31	100

② 중학교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은 NIE가 교육과정에 할당되어 있는 경우가 82.8%로 조사되었으며, 중학교 3학년은 86.2%로 나타났다. 중학교 1, 2학년보다 3학년에 NIE가 할당되어 있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5〉 중학교 NIE 할당 학년

	중1		중2		중3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할당되어 있음	24	82.8	24	82.8	25	86.2
할당되어 있지 않음	5	17.2	5	17.2	4	13.8
총계	29	100.0	29	100.0	29	100.0

③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은 83.3%, 2학년은 81.0%로 교육과정에 NIE가 할당되어 있는 비율이 높았으나 고등학교 3학년은 28.6%로 교육과정에 NIE가 할당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대입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의

특성상, 교육과정에 NIE를 할당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6〉 고등학교 NIE 할당 학년

	고1		고2		고3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할당되어 있음	35	83.3	34	81.0	12	28.6
할당되어 있지 않음	7	16.7	8	19.0	30	71.4
총계	42	100.0	42	100.0	42	100.0

(4) NIE 교육과정 할당 시간

NIE가 교육과정에 배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교사가 학기당 2회 NIE 수업을 진행하도록 연간 수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매주 1차시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방과 후 학교 활동으로 운영하거나 토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등 정규 교육과정 시간 외에 활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급별, 학생 개인별로 해당되는 시수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대상 조사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수업시간에 NIE를 활용하는 경우, 한 차시 전체를 NIE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업에 부분적으로 NIE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별 NIE 운영방식의 차이를 고려할 때, NIE 교육과정 할당 시간을 일괄적인 기준으로 계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5) NIE 실시 시간(중복응답 가능)

NIE가 실시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방과 후 활동 시간에 NIE가 실시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42.3%). 교과시간에 실시되는 경우가 전체 응답의 20.7%, 재량시간이 16.4%, 특활시간이 14.1%로 조사되었으며, 수업 전 자습시간에 실시되는 경우가 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활동(37.1%), 교과시간(22.9%), 재

량시간(20.0%) 순으로 조사되었지만, 수업 전 자습시간(11.4%)을 활용하여 NIE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중학교(4.9%), 고등학교(3.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중학교에서는 방과 후 활동(47.5%), 교과시간(21.3%) 외에도 특활시간(18.0%)을 활용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활동(42.0%)을 활용하여 NIE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그 외 교과시간(18.5%), 특활시간(16.0%), 재량시간(19.8%)을 활용하는 비율도 고르게 나타났다.

〈표 IV-27〉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실시 시간

	초		중		고		특수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수업 전 자습시간	8	11.4	3	4.9	3	3.7	0	0
교과시간	16	22.9	13	21.3	15	18.5	0	0
특활시간	6	8.6	11	18.0	13	16.0	0	0
재량시간	14	20.0	5	8.2	16	19.8	0	0
방과 후 활동	26	37.1	29	47.5	34	42.0	1	100
실시하지 않음	0	0	0	0	0	0	0	0
총계	70	100	61	100	81	100	100	100

〈표 IV-28〉 전체 거점학교 NIE 실시 시간

	사례 수	백분율
수업 전 자습시간	14	6.6 %
교과시간	44	20.7 %
특활시간	30	14.1 %
재량시간	35	16.4 %
방과 후 활동	90	42.3 %
실시하지 않음	0	0 %
총계	213	100.0 %

(6) NIE 신문 준비(중복응답 가능)

NIE를 위하여 신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담당교사가 준비’하는 경우가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는 21.7%, 학교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20.4%, 기타는 17.8%로

나타났다. 반면 구독을 원하는 학생을 수합하여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 중 2.0%에 그쳐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NIE를 위하여 신문을 준비하는 방식이 학교 급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는 담당교사가 준비하는 경우(28.2%)와 기타(28.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경우(20.5%)와 학생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20.5%)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담당교사가 준비하는 경우(53.3%)가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경우(17.8%), 학생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25.8%)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도 담당교사가 준비하는 경우(33.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생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25.8%)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V-29〉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신문 준비

	초		중		고		특수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학교에서 지원	8	20.5	8	17.8	15	22.7	0	0
구독을 원하는 학생을 수합하여 신청	1	2.6	0	0	2	3.0	0	0
학생 개별 준비	8	20.5	7	15.6	17	25.8	1	50.0
담당 교사가 준비	11	28.2	24	53.3	22	33.3	1	50.0
기타	11	28.2	6	13.3	10	15.2	0	0
총계	39	100	45	100	66	100	2	100

〈표 IV-30〉 전체 거점학교 NIE 신문 준비

	사례 수	백분율
학교에서 지원	31	20.4 %
구독을 원하는 학생을 수합하여 신청	3	2.0 %
학생 개별 준비	33	21.7 %
담당 교사가 준비	58	38.2 %
기타	27	17.8 %
총계	152	100.0 %

3) 결과 지표

(1) NIE 교사조직 유무

학교 내 NIE 교사조직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NIE 교사조직이 없는 경우가 73.0%로 조사되어 다수의 학교에서 NIE를 위한 교사조직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급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중학교 내 NIE 교사 조직이 있는 비율이 34.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내에 NIE를 위한 교사조직이 없는 경우가 79.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IV-31〉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교사조직 유무

	초		중		고		특수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NIE 교사 조직 있음	9	29.0	10	34.5	8	20.5	0	0
NIE 교사 조직 없음	22	71.0	19	65.5	31	79.5	1	100
총계	31	100	29	100	39	100	1	100

〈표 IV-32〉 전체 거점학교 NIE 교사조직 유무

	사례 수	백분율
NIE교사 조직 있음	27	27.0 %
NIE교사 조직 없음	73	73.0 %
총계	100	100.0 %

(2) NIE 관련 행사

신문 만들기 대회, 논술대회, NIE 토론회 등 NIE 관련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NIE 동아리부서를 조직하여 신문제작 및 신문사 견학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는 교사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NIE 연수(특강)를 실시하는 등 NIE를 홍보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교과를 활용한 효과적인 NIE 활용을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방학을 이용하여 NIE 방학 캠프를 운영하거나 특정 학년만을 대상으로 NIE 특강이나 대회를 개최하

는 학교도 있었다. 행사 대상 또한 교사 및 학생을 비롯하여 학부모까지도 참여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즉, 각 학교마다 다양한 형태로 NIE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NIE 평가방법

NIE 평가방법을 조사한 결과,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오프라인)가 전체 응답 중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좌 운영 중에 수시로 수강생 의견 접수(온오프라인)가 25.6%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온라인)가 5.1%로 나타나서 NIE에 대한 온라인 평가방법의 활성화 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반면, NIE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12.0%로 조사되어 NIE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오프라인)가 50%, 강좌 운영 중에 수시로 수강생 의견 접수(온오프라인)가 27.8%로 조사되었다. 중학교에서는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오프라인)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77.4%),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6.5%).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오프라인)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39.6%), 강좌 운영 중에 수시로 수강생 의견 접수(온오프라인)도 33.3%로 조사되어 수시평가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33〉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평가방법

	초		중		고		특수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강좌 운영 중에 수시로 수강생 의견 접수(온오프라인)	10	27.8	3	9.7	16	33.3	1	50.0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오프라인)	18	50	24	77.4	19	39.6	1	50.0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온라인)	0	0	2	6.5	4	8.3	0	0
기타	3	8.3	0	0	2	4.2	0	0

평가 하지 않음	5	13.9	2	6.5	7	14.6	0	0
총계	36	100	31	100	48	100	2	100

〈표 IV-34〉 전체 거점학교 NIE 평가방법

	사례 수	백분율
강좌 운영 중에 수시로 수강생 의견 접수(온오프라인)	30	25.6 %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오프라인)	62	53.0 %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온라인)	6	5.1 %
기타	5	4.3 %
평가하지 않음	14	12.0 %
총계	117	100.0%

(4) NIE 운영 시 어려운 점

NIE 운영 시 어려운 점으로 예산과 NIE 프로그램 질 관리가 각각 32.9%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교사나 강사 섭외가 12.9%, 관련시설 및 공간이 9.3%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조사된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NIE 프로그램 질 관리(44.4%), 예산(28.9%), 교사나 강사 섭외(20.0%)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NIE 프로그램 질 관리(31.4%)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지만 기타 의견이 28.6%로 예산, 관련 시설 및 공간, 강사섭외, 프로그램 질 관리 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예산(41.4%)으로 인한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질 관리(24.1%)가 그 다음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그 외 관련시설 및 공간, 교사나 강사섭외 문제는 각각 13.8%, 10.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수학교에서도 예산(50.0%)과 NIE 프로그램 질 관리(50.0%)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5〉 초, 중, 고, 특수학교 NIE 운영 시 어려운 점

	초		중		고		특수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사례 수	백분율
예산	13	28.9	8	22.9	24	41.4	1	50.0
관련 시설 및 공간	2	4.4	3	8.6	8	13.8	0	0
교사나 강사 섭외	9	20.0	3	8.6	6	10.3	0	0
NIE 프로그램 질 관리	20	44.4	11	31.4	14	24.1	1	50.0
기타	1	2.2	10	28.6	6	10.3	0	0
총계	45	100.0	35	100.0	58	100.0	2	100.0

〈표 IV-36〉 전체 거점학교 NIE 운영 시 어려운 점

	사례 수	백분율
예산	46	32.9 %
관련 시설 및 공간	13	9.3 %
교사나 강사 섭외	18	12.9 %
NIE 프로그램 질 관리	46	32.9 %
기타	17	12.1 %
총계	140	100.0 %

3. 분석결과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 120개의 NIE 거점학교(NIE 선도학교 104개, NIE 연구학교 16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최종적으로는 96개의 NIE 선도학교와 7개의 NIE 연구학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NIE 거점학교 설문조사 요약

첫째, ‘투입 지표’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NIE 수업을 하는 교원은 응답학교 교원의 99%를 차지하였으나 NIE 연수를 수강한 교원은 전체 교원의 약 20%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IE 거점학교의 경우 대다수가 종합일간지를 구독하고 있었고, 학생용 종합일간지보다 교직원용 종합일간지 구독률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NIE 담당자 업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NIE 방과 후 활동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었으며, NIE 관련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그 다음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학교 중 NIE에 예산을 할당하는 학교가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예산을 할당하지 않는 경우가 77%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예산은 오백만 원에서 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할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교별로 할당하는 예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과정 지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 후 NIE 활동을 개설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방과 후 NIE 강사는 본교 교사인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69.1%) 외부 강사 채용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가 높게 나타났다(32.5%).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과정에 NIE가 할당되어 있는 비율이 높아졌으나 고등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NIE가 교육과정 내 차시별로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보다는 방과 후 활동, 특별활동, 토요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할당 시간을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NIE는 방과 후 활동으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교과시간에 실시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였다. NIE를 위한 신문은 담당 교사가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기타의견으로 신문사로부터 무료로 신문을 지원받거나 인터넷 신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결과 지표’의 NIE 관련 교사 모임 유무를 살펴보면, 학교 내 NIE 교사조직이 없는 경우가 73%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NIE 관련 행사는 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회, 캠프,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NIE 평가는 강좌 종료 후 오프라인으로 수강생 만족도를 조사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NIE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12%로 조사되었다. 한편, NIE 운영 시 어려움 점으로는 예산과 프로그램 질 관리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교사나 강사 섭외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수의 기타의견으로 학생 참여도가 저조한 점, 학교 관리자 및 교사들의 NIE에 대한 인식 부족 등 NIE 실시 자체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 제언

이 장에서는 NIE 거점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NIE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사를 대상으로 한 NIE 연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NIE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NIE 연수를 수강한 교사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신문의 특성상 수업에 손쉽게 적용될 수 있지만, NIE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다양하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질 높은 NIE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NIE 연수를 통하여 교사들이 NIE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NIE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 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NIE 담당업무 영역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NIE 담당업무가 NIE 방과 후 활동이나 NIE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학교 현장에서는 NIE 담당업무가 NIE 실시시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타 홍보나 행사 개최, 연수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NIE 담당자는 NIE 업무에 대해 보다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방과 후 활동이나 특별활동 외에도 교내에서 NIE를 실시하는 교사들을 지원해주고, 멘토링 하는 역할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NIE 교육 예산을 계획할 때, 해당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NIE 거점학교 간 예산 차이가 큰 편으로 나타났고, NIE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으로 예산상의 문제를 많은 학교에서 호소하였다. NIE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학교의 여건을 사전에 조사하고,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NIE 프로그램의 양 등을 고려하여 예산 할당에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방과 후 NIE 활동에서 외부 NIE 강사와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NIE가 방과 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NIE를 진행하는 강사가 본교 소속 교원인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NIE 강사와 협력할 경우, 자료를 공유하면서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NIE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NIE를 위해 다양한 발행처의 신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설문결과에서 수업을 위해 담당교사가 신문을 준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담당교사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선별한 자료에 한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신문 자료 또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발행처의 신문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 또한 교사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도 개인적으로 신문자료를 살펴보고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NIE 예산 지원 방식의 편중을 개선해야 한다. NIE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NIE 관련 재단 또는 협회에서 지원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NIE 거점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양상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경우 NIE 관련 재단 또는 협회에서 할당하는 예산으로 이루어졌다. NIE에 대한 어려움 중 하나로 예산문제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NIE 관련 재단 또는 협회뿐만 아니라 수요자, 교육청, 학교 등 NIE 예산 지원 출처를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NIE 예산 집행 의존도를 개선하고, NIE 운영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일곱째, 교사들이 NIE 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NIE를 위한 교사 모임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조사결과, 교내 NIE 교사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NIE를 위한 교사들 간의 협의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질 높은 NIE를 위해서는 교사 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수업을 반성하고, 보완할 기회가 필요하다. 교사 모임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의 수업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체로 거듭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NIE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시켜 자발적인 NIE 교사 모임을 조직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여덟째, NIE에 대한 수시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NIE 평가의 과반수 이상이 강좌 종료 후 오프라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시로 수강생들 혹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는 것이 학생들의 NIE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NIE 프로그램 질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시평가는 NIE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NIE의 효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NIE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여야 한다. NIE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기타의견으로 학생들의 참여의욕이 저조한 상황이 다수 제시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NIE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수업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이 호소하는 NIE 결과물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NIE를 활용한 체험활동을 구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V. 학교 외 기관 및 단체

1. 사회교육기관 NIE 현황 조사

지역 주민들의 교육력 증진 및 사회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서비스 확대에 따라 사회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외 사회교육기관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2010년 기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사회교육기관 시설(유·초·중등학교 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형태), 평생학습관,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은 총 3,213개 기관이며(평생교육진흥원, 2011), 각 기관은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 및 정책적 흐름에 따라 NIE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교 외 기관에서 현재 운영되는 NIE 프로그램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NIE 전문기관으로 볼 수 없는 사회교육기관에서 NIE를 운영하는 양상과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1)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기관은 학교 이외에 지역 주민의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NIE 전문 교육 기관이 아닌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공공도서관, 지자체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NIE 전문 교육기관을 제외한 까닭은 본 연구에서 NIE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적인 사회교육기관에서 NIE 관련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양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밝히고자 의도했기 때문이다.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리서치를 통해 현재 NIE 관련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였다. 조사결과, 경상대 평생교육원을 포함하여 군산대, 제주대, 경인교대, 경남과학기술대, 광주여대, 덕성여대, 부경대, 서울교대, 아주대, 한밭대 등 총 11개를 선정하였는데, 이 중 제주대와 군산대의 경우, 설문지 답신 결과 2012년 9월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에서 제외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 805개가 분포하고 있다(공공도서관 통계작성, 2012). 본 연구는 홈페이지 조사를 하였으며, 현재 NIE 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공공도서관과 강좌 관련 정보가 기술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리서치를 통해 조사하기 어려운 운영상 어려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NIE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구 도서관을 전화 인터뷰하였다.

각 지역구마다 동(읍)사무소와 함께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지자체 주민센터의 경우, 지역주민의 교육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NIE 관련 프로그램 또한 지역주민의 수요나 관련 예산 지원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문헌연구 및 홈페이지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유형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① 홈페이지 조사자료 분석

현행 사회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NIE 프로그램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기관 홈페이지 홍보자료 및 보도자료, 관련 프로그램 소개 내용, 관련 연구 보고서 내용을 정리·분석하여 NIE 프로그램의 다양한 양상과 형태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② 문헌연구

현재 사회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NIE 교육 프로그램의 정의 및 범위 유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③ 전화 인터뷰

홈페이지 조사 및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된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사회교육기관 소속의 NIE 강좌 운영 담당자,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간략하게나마 전화 인터뷰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3년 이상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기관 담당자 2인이다. 한 명은 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NIE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비롯한 평생교육강좌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담당자(이하 담당자 A)이고, 또 다른 한 명은 경기도 안양 소재의 대학에서 NIE를 비롯한 평생교육강좌 운영자(이하 담당자 B)이다.

2. 사회교육기관 NIE 현황분석

1) 사회교육기관 NIE 강좌 프로그램 유형

NIE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NIE 강좌의 목표, 내용, 운영 장소, 방법, 운영 시기 등에 따라 NIE 프로그램의 전개양상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1) 초·중·고 학생 대상

① 사회교육기관 내 정기 NIE 프로그램 : 연령별 분리 모집

사회교육기관 내에서 정기적으로 NI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은 대개 해당 사회교육기관만의 독자적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방과 후에 사회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NIE 전문 강사가 사회교육기관에 방문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교육기관 내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학생 대상 NIE 프로그램 강좌에 대한 소개글은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학습 프로그램(서

울시 □□구 도서관 외)’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 대상 NIE 프로그램의 목표는 신문활용교육을 통해 시사적인 정보획득은 물론 언어능력, 독서 훈련, 글쓰기 능력 등을 기르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및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는 학생 모집 시에 학생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저학년(1~2학년), 중학년(3~4학년), 고학년(5~6학년) 학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하였으며, 중·고생의 경우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 각각 분리하여 모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각 학생들의 연령별 발달 특징을 고려한 선발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 신문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경우, 주로 독서능력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부터 3년 여간 주민센터 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문활용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센터의 경우, 도입부 차시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이 신문 자체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신문 내 다양한 사진자료 등의 시각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신문에 친숙해지는 단계 이후에는 신문에 제시된 어휘를 공부하는 경험을 통해 수준 높은 독서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초등학교 중학년 이후의 학생들부터는 NIE 프로그램이 논술교육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경남 양산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2012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NIE 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신문 독해 차원을 넘어서서 신문을 활용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근거를 찾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② 사회교육기관 학교방문 NIE 프로그램 : 수업과 연계

학교 방문 NIE 강좌의 경우, 수업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사례가 많으며, 방과 후 선택 강좌로 운용되는 형태와 정규 수업에 편성되어 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운용되는 형태로 나뉜다.

경남 김해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문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방과 후가 아닌 정규 수업에 들어가기 1시간 전에 운영되기 때문에 수업과 연계되어 진행되기 쉽다. NIE 프로그램 대상 신문에 자연보호, 선거 등 교과서에 연관되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수업자료로 활용된다.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신문은 주로 부산일보를 비롯한 10여 종의 지방지와 중앙지들. 이들 신문에 자연보호 등 교과서와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면 곧바로 수업자료로 쓰이고 있다.

NIE 강좌를 정규수업에 편성하여 운영 중인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 모(10)양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신문에 나와 신기한 느낌”이라며, “다양한 신문에서 발췌된 내용으로 교과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③ 주말 NIE 프로그램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발맞추어 사회교육기관에서 주말에 학생 대상 NIE 강좌를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관내 읍, 면, 동의 신청을 받아 '꿈을 먹는 어린이 NIE·독서논술교실' 제목의 주말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주민센터에서는 2012년 런던올림픽을 기념하여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NIE 신문과 함께 떠나는 런던올림픽'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강좌는 올림픽의 유래 및 역사, 경기종목, 참가국, 스포츠 정신 등 신문 속 올림픽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북 아트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으로 8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 반씩 운영되었다.

④ 방학을 겨냥한 학생대상 NIE 프로그램

학생들의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는 방학을 맞이하여 선발·운영되는 특별강좌의 형태도 있다. 단기 강좌의 경우, 횟수가 단기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동작구 ○○주민센터는 2012년 여름방학 맞이 단기 NIE 강좌를

운영하였다. 수업내용은 초등학생들이 주어진 주제별로 신문에 난 기사를 오려 붙이거나, 신문 속 만화를 따라 그려보고 책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도서관에서는 2012년 여름방학 단기 강좌로 총 4차시에 걸쳐 초등학생 대상 신문 제작 강좌를 운용하였다. 독서신문과 환경신문을 직접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기사를 작성하며 그리는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이끌어내어 성취감을 얻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NIE 지도사 자격시험 준비 과정생

NIE 지도사는 대중매체 일반의 특성과 신문의 구성요소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문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 실행하는 전문가이다. NIE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NIE 협회, 조선일보, 이태종 NIE 논술연구소, 미래 NIE 논술연구소 등이며, NIE 지도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 NIE 협회에서 인정하는 강의처에서 NIE 지도사 교육을 70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NIE 협회에서 발급하는 NIE 지도사 자격고사의 경우 2005년 3월 27일 1회 자격고사 시행을 시작하였으며 1월과 7월 연2회 서울, 대전, 부산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험은 40문항의 객관식 필기시험과 NIE 수업계획안 작성 및 수행결과물 제작의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자격증 취득은 필기시험 70점 이상, 실기시험 80점 이상 획득해야 가능하다.

특히, 사회교육기관 중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일반인 재교육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NIE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특히 NIE 지도사 자격시험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조사결과, 현재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군산대, 경인교대, 경남과학기술대, 광주여대, 덕성여대, 부경대, 서울교대, 아주대, 한밭대) 모두가 NIE 지도사 시험 준비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이와 같은 NIE 지도사 자격 프로그램 내용의 필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V-1〉 NIE 지도사 자격 프로그램 내용의 필수 구성 요소

항목	구체적 사례
커리큘럼 구성	· 글쓰기 교육(논술교육) · 실기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연구 · 모의 수업 과정 · 신문 이해 교육 · 프레젠테이션 교육 · 인턴십 과정 · 시사 문제와 연계된 교과 과정 프로그램 개발
교수학습 방법	· 토론 교육 · 학습자 이해 교육 · 신문, 도서, 교과서의 통합 학습
교재 개발	· 책과 신문을 연계한 수업 · 학생의 수업자료 공유 · 활용 가능한 워크북의 개발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홍보자료 사례는 다음 〈표 V-2〉와 같다.

〈표 V-2〉 대구시 동구 ◇◇ 주민센터 NIE 지도사 시험 강좌 홍보자료

〈2012년 8월~10월 과정 준비 강좌〉 ■ 교육 대상 1. 고교 졸업자 이상 학력의 NIE에 관심 있는 성인(학부모) 2. NIE에 관심을 갖고 관련 분야의 봉사나 취업을 희망하는 자 3. 아동지도에 관한 업무경력이 있는 전·현직 지도교사 ■ 수료 기준 ·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 자격 및 합격기준 1. 수료기준: 45시간 (15주)의 교육시간 중 70% 출석자에 한함. 2.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 자격: 위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자에 한함. 3. 자격증 발급처: 국제민간자격증협회 4. 자격증 취득시험 배점: 지필고사 70%, 출석 10%, 과제물 20% 5. 합격기준: 총점의 70%이상 획득, 과제물 제출자에 한함. ■ 수강생 특전 1. 70%이상 수강 시 영천시립도서관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2. 수료자에게 ODS교육연구소가 주관하고 국제민간자격증협회에서 발급하는 NIE 지도자과정 자격인증시험 응시 기회 부여. (전형료 및 자격증 발급비 별도 개인부담) 3. 방과 후 NIE 프로그램 및 강좌 개설 시 필요한 교육정보(교재 및 강좌개설 정보)제공. ■ NIE 지도교사의 교육 수료 후 진로 1. 방과 후 NIE 지도교사로 활동 2. 도서관 자원봉사 및 특강 NIE 공부방 운영 3.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NIE 전담강사로 활동 4. 내 자녀 NIE 지도
--

▪ 강의 교재 : 『NIE 이해와 활용』 - 교재비 2만원 (수강생부담) / ODS교육연구소 편저

- 수강 시간 : 주 1회 3시간/ 15주/ 총 45시간
- 자격증 발급 처: 국제민간자격전문협회
- 자격증 인증시험: 16주차에 실시 예정
- 자격증 인증시험 전형료: 2만원(수강생부담)
- 자격증 발급비: 5만원(수강생부담)

*주소지가 동구에 있어야 합니다.

*10차시 수업까지는 지자체에서 수업료를 지원하지만 나머지 수업료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10명일 경우 4만5천원,15명일 경우 3만원씩 부담)

이러한 내용의 프로그램 수강대상은 대개 NIE 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이가 대부분이지만, 자격증 획득 이외에도 NIE를 활용한 자녀 교육방안에 관심 있는 학부모가 수강대상인 경우도 있다.

담당자 B: NIE 자격강좌 강사 분께 저희 기관 지도사 자격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지도사 자격시험을 보지 않는 분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형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3) 교사

교사 대상 NIE 프로그램은 대개 교육청 등의 주최 하에 실시되는 NIE 담당자 연수와 NIE 전문기관 또는 교사 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NIE 선택 강좌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학교 NIE 담당 교사의 의무 연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후자의 경우 공인된 NIE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15시간/30시간/45시간/60시간) 이수하면,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활용교육에 대한 이해 및 신문매체의 특성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이론적 이해이다.

둘째, 현재 NIE와 관련되어 개발된 다양한 수업자료 이를 테면 현직교사 중심의 NIE 교육 전문가들 중심으로 개발된 수업지도안을 활용하는 법 등이다.

셋째, 교과와 연계되어 신문활용교육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특히 국어과와 사회과와 같이 신문활용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교과의 경우에는 신문을 통해 해당 교과 관련 지식을 습득하거나 논술 등의 글쓰기나 말하기 등으로 신문 속 내용을 표현하게 하는 통합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 대상 NIE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교육기관보다는 신문사, 교육청, NIE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사 NIE 연수가 지역주민의 교육력 제고 측면보다는 교사 재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사회교육기관 NIE 강좌 운영 시 문제점

이처럼 사회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NIE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학생에게는 학습력 신장의 기회를, 교사에게는 수업방법 개선 및 발전의 기회를, 지역주민에게는 직업교육의 기회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마련의 어려움

사회교육기관의 경우, 지역 주민의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강좌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수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원래 취지대로 운용 시 별도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수강생 모집 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여 모집함으로써 해당 강좌가 수익성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표 V-2>에 제시된 NIE 지도사 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의 한 주민센터의 경우에도 총 15차시 수업에서 10차시 수업까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운영과정에서 예산 마련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회교육기관은 지역주민에 따라 교육적 수요에 따라 강좌를 운용하는 NIE 비전문기관이므로, 관련 예산의 별도 편성에 어려움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은 수익자 부담의 강좌 운용으로 이어지게 되며, 비교적 적은 예산이 필요한 단기 특강보다는 정기적 예산 편성이 요구되는 정기 NIE 강좌의 경우를 운용할 경우에 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

담당자 A: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NIE 강좌를 운영한지 3년이 넘었고, 수강인원도 120명 정도로 많은 편이지만, NIE 강좌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즉 수요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도서관 자체 관련 사업만 진행하기에도 예산이 빠듯해서 별도의 예산 마련이 쉽지는 않아요. 대신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를 정기적인 오프라인 평가 등으로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회교육기관의 NIE 강좌 자체가 본래 수익성 창출이 아닌 지역주민의 교육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용되는 만큼 관련 예산의 별도 책정이 필요하다. 만일 예산 마련이 어려워 수익자 부담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프로그램 질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대외적 네트워크 형성 부재

지자체 도서관, 주민센터,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등 사회교육기관의 경우, NIE의 적극적 활용 그 자체 혹은 이에 대한 홍보를 목표로 하는 기관이 아니다. 신문사의 경우 신문이라는 매체에 관하여, 학교 또는 교육청의 경우 이를 활용하는 교육에 대하여 각각 특화되어 있지만, 사회교육기관의 경우 지역민의 교육력 증진을 위한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로서 NIE 강좌를 운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회교육기관에서는 NIE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기관 자체에서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프로그램

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지역적 네트워크 형성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담당자 A: 별도의 NIE 관련 행사를 운영하거나 책자를 발간한 적은 없어요.

담당자 B: 저희 기관 자체에서 NIE 관련 책자를 따로 발간하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죠.

(3) 프로그램 질 관리의 어려움

사회교육기관의 경우, NIE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만큼 다른 NIE 전문기관에 비해 프로그램 자체를 해당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해당 강좌의 강사에게 위임해 버리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강생이 만족하면 프로그램의 본래 목표를 달성했다는 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NIE 프로그램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담당자 B: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NIE를 널리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강생들이 지도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니까요.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현 NIE가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연구로서, NIE가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 및 운영·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NIE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신문사 등 NIE를 운영하는 각 주체별로 현재 NIE를 지원하는 방식, 예산의 내용, NIE 프로그램 운영내용, 운영 시 어려운 점 등을 조사·분석하여 NIE 운영체제 개선과 지속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NIE 효과성 연구나 기타 체제 연구 등의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NIE 관련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정책운영 실태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NIE가 본래 목표로 하는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선 및 지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NIE 관련 운영주체가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신문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운영주체 간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내는 토대를 제공한다.

‘2012 NIE 현황 조사연구’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NIE가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앞으로 NIE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토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NIE를 운영하는 핵심 주체(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신문사)별로 NIE를 지원하는 방식과 내용, 운영 중인 NIE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 시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2년 현재 NIE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NIE 수행 주체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1. 신문사

첫째, 신문사간에 NIE 교재나 지면 제작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신문사의 NIE 담당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점집단(focus group) 인터뷰 결과, 실제 NIE 지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신문 콘텐츠 ‘저작권’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적 목적 이외에 교육적 목적을 가진 NIE의 특성상, 지면을 구성할 때 균형 잡힌 시각에서 타 사 기사를 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문사간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해당 신문사의 기사로만 NIE 지면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방송 3사(KBS, MBC, SBS)의 경우, 상호 협약에 의하여 예능 프로그램에 한해 일주일에 프로그램 당 한 아이템에 3분 이내로 타 사 프로그램 화면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시청자들이 방송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방송 흐름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방송사 간에 업무협력을 한 좋은 예이다. 신문사 NIE 자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이러한 콘텐츠 공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신문협회 차원에서 NIE 관련 지면을 작성한다는 전제하에 관련 콘텐츠(contents)를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신문사가 NIE를 위한 콘텐츠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신문협회를 중심으로 협약을 통하여 콘텐츠 공유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각 신문사 NIE 담당자로 하여금 NIE의 의미나 교육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연수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신문사 NIE 프로그램은 해당 신문사의 담당 기자가 주도적으로 운용해나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담당자 개인이 NIE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NIE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NIE의 교육적 효과 및 달성방안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사례, 독자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NIE 방안 등의 NIE 관련 전문적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한 담당자 연수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 및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신문사 NIE는 수익 창출뿐 아니라 공익 증진의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계획·실행하여야 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신문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NIE 프로그램 운용 시 프로그램의 내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독자의 반감을 사서 오히려 수익성 자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특히 NIE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은 일반 독자들과는 달리 신문사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NIE 관련 정책은 신문사가 단순히 자사의 수익 증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운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문사 간의 NIE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NIE 관련 담당자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NIE는 각 신문사의 즉각적인 수익창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사 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신문사 간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NIE 프로그램을 통해 신문 속 정보들이 보다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신문사가 운용하고 있는 NIE 프로그램들의 장점이거나 한계, 새로운 NIE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관한 담당자 간 혹은 전문가와 담당자 간의 주기적인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첫째, 지자체 및 NIE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NIE 관련 기관과 협력한 경험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약 11% 정도에 불과했다. 교육청은 지역사회 NIE 관련 기관과 단위학교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각 국가기관들이 NIE 운용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와 학교, 학교와 NIE 관련 기관들을 연결시켜주고, 이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단위학교 NIE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NIE 관련 연수나 행사 및 세미나를 마련하거나 교재를 발간하는 경우는 0~5%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의 경우도 NIE 관련 연수를 제외하고는 마찬가지였다. 교육청은 단위학교가 NIE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NIE 연수를 할 수도 있고, 교사를 대상으로 우수 NIE 사례발표를 공모할 수도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NIE 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셋째, 교육청이 지정한 NIE 연구 및 시범학교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시·도 및 교육지원청이 현재 NIE 연구 및 시범학교를 별도로 지정한 비율은 8~30% 수준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만한 평가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NIE 연구 및 시범학교가 학교 NIE의 활성화를 위한 시발점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평가지표 마련 및 주기적인 평가의 실시 및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3. 학교

첫째, NIE를 관련 교과수업과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NIE가 학교교육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어, 사회 등 관련 교과수업에 적극적으로 통합되어 운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국언론진흥재단 NIE 거점학교 조사결과, 학교 급에 관계없이 학교 내 NIE 수업은 방과 후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초등-37.1%, 중-47.5%, 고등-42.0%). 교과교육에서는 국어, 사회과 등에서 비교적 NI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그러나 신문은 모든 영역을 다루는 종합적인 학습 자료이자 통합주제로 범교과 학습이 가능한 가장 좋은 학습 자료이다. 이러한 신문의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각 교과별로 활용 가능한 주제 또는 단원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시킬 수 있을 지에 관한 연구와 개발 자료가 보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NIE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지표 마련 및 이에 따른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NIE 거점학교 내 NIE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NIE 프로그램 운용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NIE 프로그램의 질 관리’라고 응답한 비중이 ‘예산 마련’과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초등-44.4%, 중-31.5%, 고등-24.1%). 실제로 NIE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초등-13.9%, 중-6.5%, 고-14.6%), NIE 실시에 대한 반성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 조직 또한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초등-29%, 중-34.5%, 고-20.5%). 따라서 NIE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NIE 프로그램 평가지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평가지표가 제공되면 교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NIE 수업을 할 수 있으며, 피드백은 물론 자기반성과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4. 사회교육기관

첫째, NIE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 중인 사회교육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사회교육기관은 NIE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아니며, 대부분이 단기 특강의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NIE 프로그램 자체가 방만하게 운용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다른 사회교육기관에서 NIE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체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NIE 관심 확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이 필요하다.

사회교육기관은 지역주민의 교육력 제고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따라서 NIE의 경우에도 관련 프로그램 이외에 해당 강좌에서 나온 결과물을 발간하거나, 홈페이지에 NIE를 홍보하는 자료를 탑재하거나, 수강생 이외의 지역주민들이 NIE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말 특강을 운용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NIE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번에 실시된 ‘2012 NIE 현황 조사연구’는 무엇보다도 NIE 운용주체별로 NIE 관련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현 운영실태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NIE가 본래 목표로 하는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선 및 지속·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 및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NIE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확산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NIE 관련 운영주체가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신문

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운영주체간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석우 외(2004). **NIE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경환 외(2011). **NIE 강사 육성시스템 제도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기태 외(2010). **한국적 NIE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국내 NIE 실태 및 해외사례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영만(2006). **매체를 활용한 읽기·쓰기 교육 방안 연구: 신문 사설·칼럼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순 외(2010). **초등학교 신문활용교육의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김용술(2006). **신문활용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통, 박정순(1999). **재미있는 NIE 교실**. 서울: 중앙 M&B.
- 성태모(2003). **NIE를 통한 국어과 특기·적성 지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흥식, 김종화, 정성희(2011). **어린이 신문·잡지 이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 윤영태 외(2011). **사회 NIE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철우, 문종대, 안차수(2010). **한국 NIE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태종(2004). **NIE 신문읽기 세상읽기**.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태종(2006). **NIE원론 I**. 서울: 도서출판 통키.
- 이태종(2006). **NIE원론 II**. 서울: 도서출판 통키.
- 임미영(2008). **NIE가 학생들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성, 구정화, 박미영(2004). **학교 NIE 알아보기**. 서울: 한국신문협회.
- 정문성, 구정화(2005). **학생 NIE 알아보기**. 서울: 한국신문협회.

정문성 외(2010). NIE가 학업성취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최상희(1998). 사회과교육에서의 신문활용방안: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상희(2003). NIE 이해와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NIE한국위원회(2005). NIE 가이드북. 서울: 한국신문협회.

부 록 1

- 1-1. 신문사 NIE 현황 조사 설문지
- 1-2. 신문사 NIE 담당자 면접조사 질문지
- 1-3. 교육청 NIE 현황 조사 설문지
- 1-4. 교육지원청 NIE 현황 조사 설문지
- 1-5. 학교 NIE 현황 조사 설문지
- 1-6. 사회교육기관 NIE 현황 조사 설문지

부록 1-1. 신문사 NIE 현황 조사 연구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2 연구사업’ 일환으로 한국신문협회가 진행하는 연구조사입니다. 조사 목적은 신문사별 신문활용 교육(NIE)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소중한 의견은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주관기관 한국신문협회

연구진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최상희 경향신문사 편집부 차장

담당자 : 한국신문협회 이효정

전 화 : (02)733-2251~2

회신이메일 : presskorea1@gmail.com

2012년 *월 *일까지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8개 분야입니다. 이 가운데 귀사가 운영하고 있는 분야를 체크(V)한 뒤 해당 쪽수에 가서 조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순	분야	운영하고 있다	운영하지 않는다
1	신문지면 게재 2쪽		
2	디지털 매체 운용 3쪽		
3	신문사 주관 강좌 운영 4쪽		
4	NIE 관련 발행물 발간 5쪽		
5	견학 등 체험 프로그램 6쪽		
6	교육용 신문 지원 7쪽		
7	NIE 사업 또는 학술행사 8쪽		
8	NIE 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 9쪽		

【1】신문지면 게재

1. 발행지면 형태는 무엇입니까?

- ___ 1) 본지 중 독립적 지면
 ___ 2) 본지 지면에서 일부 코너로 게재
 ___ 3) 교육 섹션 중 1개면
 ___ 4) 교육 섹션에서 일부 코너로 게재
 ___ 5) 다른 형태 (적어주세요) :
 ___ 6) 지면이 없다 (이하 응답 생략)

2. 귀사의 NIE 지면 구성 및 기사 작성할 때 의사결정은 누가 하나요?

- ___ 1) 담당 기자 단독 결정
 ___ 2) 담당 기자 결정 후 데스크 승인
 ___ 3) 담당 데스크 결정
 ___ 4) 외부 필진 단독 결정
 ___ 5) 담당 기자와 외부 필진 협의

3. 귀사의 NIE 지면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체크해 주시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항목에 따라 중복 응답 가능)

구분	내용	선택
담당 기자 수	1) 1명 2) 2명 이상 3) 없다	
담당 기자 소속	1) 본사 2) 독립 법인 3) 기타()	
NIE 전담 여부	1) 전담 2) 분담 3) 없다	
담당 데스크 수	1) 1명 2) 2명 이상 3) 없다	
담당 데스크 소속	1) 본사 2) 독립 법인 3) 기타()	
외부 필진 수	1) 1명 2) 2명 3) 3명 이상 4) 없다	
외부 필진에게 원고료 지급 여부	1) 지급한다 2) 지급 안 한다 3) 기타()	
지면 제작 형태	1) 담당기자 독자 운영 2) 외부 필진 의뢰 제작 3) 담당기자와 외부 필진의 분담 4) 기타 ()	
NIE 예산 확보	1) 고정 예산 확보하고 있다 2)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지급받고 있다 3) 부서비 또는 다른 항목으로 마련하고 있다 4)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 5) 후원 받는다 6) 기타 ()	

【2】디지털 매체 운용

4. 운용 형태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___ 1) 홈페이지
 ___ 2) 인터넷 카페
 ___ 3) 블로그
 ___ 4)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
 ___ 5) 다른 형태 (적어주세요) :
 ___ 6) 운용하지 않는다 (이하 응답 생략)

5. 운용주체는 무엇입니까?

- ___ 1) 담당기자 전담
 ___ 2) 외부 전문가 전담
 ___ 3) 담당기자와 외부 전문가의 분담
 ___ 4) 별도의 관리 직원
 ___ 5) 기타 (적어주세요) :

6. 운용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체크해 주시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항목에 따라 중복 응답 가능)

구분	내용	선택
지면과 연계	1) 지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 2) 지면 내용과 함께 다른 아이템도 수록한다 3) 지면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NIE 배너 운영	1) 운영하고 있다 2) 운영하지 않는다	
다루는 주제	1) 정치 2) 경제 3) 사회 4) 문화 5) 스포츠 6) 과학 7) 교육 8) 인물 9) 환경 10) 인성 11) 보건 12) 안전 13) 에너지 14) 인권 15) 다문화 16) 미디어 17) 글쓰기·논술 18) 정보화 및 정보 윤리 19) 민주 시민 20) 기타()	
독자 대상	1) 유아 2) 초등학생 3) 중학생 4) 고등학생 5) 대학생 6) 일반 독자 7) 기타()	

【3】신문사 주관 강좌 운영

7. 강좌 운영 형태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___ 1) 신문사 지정 장소에서 집합교육
 ___ 2) 인터넷 교육
 ___ 3) 외부단체 의뢰 운영
 ___ 4) 외부단체와 공동 운영
 ___ 5) 일선 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
 ___ 6) 기타 (적어주세요) :
 ___ 7) 운영하지 않는다 (이하 응답 생략)

8. 귀사의 NIE 강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체크해 주시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항목에 따라 중복 응답 가능)

구분	내용	선택
담당자 수	1) 1명 2) 2명 이상 3) 없다	
담당부서 소속	1) 본사 2) 독립 법인 3) 기타()	
강사 수	상근 ()명 비상근 ()명	
강의 장소	1) 본사 2) 독립 법인 3) 기타()	
강좌의 단계	1) 기초과정 2) 중급과정 3) 고급과정 4)전문가과정 5) 기타()	
강좌의 대상	1) 유아교육기관 교사 2) 초등 교원 3) 중등 교원 4) 학부모 5) 유아 6) 초등학생 7) 중·고교생 8) 대학생 9) 강사 10) 기타 ()	
수업료	()주 과정 ()원	
교육비 부담	1) 수익자 부담 2) 교육비 전액 후원비로 충당 3) 교육비 중 일부 후원 지원 4) 교육비 무료 5) 기타()	
이수 후 결과	1) 자격증 발급 2) 수료증 발급 3) 인증서 발급 4) 없다 5) 기타()	

9. 지금까지 강좌 운영 실적을 적어주세요. (연도별 과정 수 및 이수 인원)

※파일 첨부 가능

【4】NIE 관련 발행물 발간

10. 귀사는 NIE 관련 발행물을 만듭니까? (중복 응답 가능)

- ___ 1) 활동지 발간
 ___ 2) 교재 발간
 ___ 3) 교구개발
 ___ 4) 기타 (적어주세요) :
 ___ 5) 발행 하지 않는다 (이하 응답 생략)

11. 귀사의 발행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체크해 주시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항목에 따라 중복 응답 가능)

구분	내용	선택
담당자 수	1) 1명 2) 2명 이상 3) 없다	
담당부서 소속	1) 본사 2) 독립 법인 3) 기타()	
제작자의 수	1) 1명 2) 2명 이상 3) 없다	
발행주기	1) 주간 2) 격주간 3) 월간 4) 연간 5) 부정기 5) 기타()	
발행 부수	월()부 or 연 ()부	
발행 면수	()면	
1부당 제작 단가	()원	
1부당 판매가	()원	
발행물의 독자	1) 유아교육기관 교사 2) 초등 교원 3) 중등 교원 4) 학부모 5) 유아 6) 초등학생 7) 중·고교생 8) 대학생 9) 강사 10) 기타 ()	

12. 지금까지 발행물 실적을 적어주세요. (연도별 발간 실적)

※파일 첨부 가능

【5】견학 등 체험 프로그램

13. 귀사가 운영하고 있는 NIE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___ 1) 있다

___ 2) 없다 (이하 응답 생략)

14. 귀사의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체크해 주시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항목에 따라 중복 응답 가능)

구분	내용	선택
담당자 수	1) 1명 2) 2명 이상 3) 없다	
담당부서 소속	1) 본사 2) 독립 법인 3) 기타()	
프로그램 수	연간 ()개	
참가비	()원	
교육비 부담	1) 수익자 부담 2) 교육비 전액 후원비로 충당 3) 교육비 중 일부 후원 지원 4) 교육비 무료 5) 기타()	
체험 프로그램 종류	1) 신문사 견학 2) 학생 기자단 운영 3) 기자 캠프 운영 4) 기자 교육현장 출강 5) 학교신문 또는 교지 제작 지원 6) 기타 ()	
체험 프로그램 대상	1) 유아 2) 초등학생 3) 중·고교생 4) 학부모 및 일반인 5) 대학생 6) 초등 교원 7) 중등 교원 8) 강사 9) 기타 ()	

15. 지금까지 운영한 체험 프로그램 실적을 적어주세요. (연도별 실적)

※파일 첨부 가능

【6】교육용 신문 지원

16. 귀사는 교육용 신문을 지원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나요?

___ 1) 있다

___ 2) 없다 (이하 응답 생략)

17. 귀사의 교육용 신문 지원제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체크해 주시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항목에 따라 중복 응답 가능)

구분	내용	선택
담당자 수	1) 1명 2) 2명 이상 3) 없다	
담당부서 소속	1) 본사 2) 독립 법인 3) 기타()	
지원 부수	연 ()부, 월 ()부	
전달방법	1) 본사서 직접 전달 2) 지국을 통해 전달 3) 수익자가 직접 수령 4) 택배 6) 우편 7) 기타()	
신문 구독료	1부당 ()원	
구독료 여부	1) 수익자 전액 부담 2) 구독료 전액 후원비로 총 당 3) 구독료 중 일부 후원 또는 할인 4) 무료 지급 5) 기타()	
신문 배부 대상	1) 유아교육기관 2) 초등학교 3) 중·고교 4) 대학 교 5) 사회단체 6) 복지관 7) 문화센터 8) 주민 자치센터 9) 기타5) 기타()	

18. 지금까지 운영한 교육용 신문 지원제도의 실적을 적어주세요. (연도별 실적)

※파일 첨부 가능

【7】NIE 사업 또는 학술행사

19. 귀사는 NIE 사업 또는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___ 1) 있다

___ 2) 없다 (이하 응답 생략)

20. 귀사의 NIE 사업 또는 학술행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체크해 주시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항목에 따라 중복 응답 가능)

구분	내용	선택
운영 중인 NIE 사업	1) 공모전 2) 경진대회 3) 체험전 4) 전시회 5) NIE 대회 6) 기타 ()	
운영 중인 NIE 학술행사	1) 세미나 2) 워크숍 3) 심포지엄 4) 포럼 5) 기타 ()	
행사 및 사업 수	행사 연간 ()개, 사업 연간 ()개	
담당자 수	1) 1명 2) 2명 이상 3) 없다	
담당부서 소속	1) 본사 2) 독립 법인 3) 기타()	
참가비	행사 및 사업 ()원	
	학술대회 ()원	
행사 및 사업의 참가비 여부	1) 수익자 부담 2) 전액 후원비로 충당 3) 참가비 중 일부 후원 지원 4) 무료 5) 기타()	
학술대회 참가비 여부	1) 수익자 부담 2) 전액 후원비로 충당 3) 참가비 중 일부 후원 지원 4) 무료 5) 기타()	
대상	1) 유아 2) 초등학생 3) 중·고교생 4) 학부모 및 일반인 5) 대학생 6) 초등교원 7) 중등교원 8) 강사 9) 기타 ()	

21. 지금까지 운영한 NIE 사업 및 학술대회의 실적을 적어주세요. (연도별 실적)

※파일 첨부 가능

【8】일반적인 질문

※다음은 설문에 응한 분을 위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22. 응답자의 성별은?

- 1) 남() 2) 여()

23. 근무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서울 2) 경기·인천 3) 충청권 4) 강원권 5) 경상권 6) 전라권 7) 제주권

24. 근무하고 계신 신문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1) 중앙종합일간지 2) 지역종합일간지 3) 경제지 4) 스포츠지
5) IT·통신 6) 기타 ()

25. 근무 연수(동종 이전 직장 포함)는 얼마나 되십니까?

- ()년 ()개월

26. NIE 업무를 맡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개월

27. 직급은 무엇입니까?

- 1) 평기자 또는 평사원 2) 차장대우~차장 3) 부장대우~부장 4) 부국장 이상

※다음은 귀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질문입니다.

28. 귀사의 NIE 담당자는 몇 명이며,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맡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예, 데스크, 기자, 직원 등

순	이름	부서 / 직위	역할

29. 귀사가 저희 연구진에게 첨부해 전달해 주실 자료는 무엇입니까?

➡ 파일이 있다면 별도로 첨부하세요.

이상 설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1-2. 신문사 NIE 담당자 면접조사 질문지

소속 :

이름 :

1. 현재 운영 중인 NIE 프로그램에 대해 신문사 내부 및 외부의 반응은?
2. 귀사의 NIE 프로그램의 강점(특화)이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귀사의 NIE 프로그램의 단점이나 방해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NIE 프로그램이 신문 인지도 또는 경영 등에 도움이 되는가?
5. NIE 담당자들은 재교육 또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이유와 어떤 재교육 또는 연수를 희망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6. 귀사의 NIE 담당자들은 ‘공익적 업무’ (지면, 강의 등)와 ‘수익적 업무’ (사업, 행사 등)의 업무 비중을 어디에 많이 두는 편인가?
7. 신문사 간 NIE 프로그램의 업무협조 또는 정보교류는 원활한 편인가?
그렇다면 이유와 어떤 부분에서 이뤄지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8. 우리나라 NIE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신문사, 언론단체, 학교, 교육당국 등)

부록 1-3. 교육청 NIE 현황 조사 연구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용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2 연구사업’ 일환으로 한국신문협회가 진행하는 본 조사의 목적은 각 시·도교육청별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귀 기관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오니 직접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주관기관 한국신문협회

연구진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최상희 경향신문사 편집부 차장

담당자 : 한국신문협회 이효정

전 화 : (02)733-2251~2

회신이메일 : presskorea2@gmail.com

2012년 *월 *일까지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NIE(신문활용교육) 관련 업무 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고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교육청에서 NIE 관련 업무가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 1) 1년 미만

___ 2) 1년 이상~2년 미만

___ 3) 2년 이상~3년 미만

___ 4) 3년 이상

2. 귀 교육청에서는 NIE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_____ 1) 예

___ 2) 아니요

3. NIE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부서명을 적어 주세요.

부서명: _____

4. 귀 교육청 홈페이지에 NIE 관련 배너 또는 자료가 로드되어 있습니까?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홈페이지 명칭 _____)

5. NIE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약 _____ 원)

6. NIE와 관련하여 교류나 협약을 맺은 기관이 있습니까? (예: 신문협회 등)

_____ 1) 없음

____ 2) 있음 (단체 또는 기관명 _____)

7. 지역교육지원청에 NIE와 관련한 공문을 얼마나 보내십니까?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약 _____회)

8. NIE와 관련하여 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구학교가 있습니까?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총 _____ 개 학교)

9. NIE와 관련하여 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범학교가 있습니까?

____ 1) 없음 ____ 2) 있음 (총 _____ 개 학교)

10. NIE와 관련하여 귀 교육청에서 실시되는 연수과정이 있습니까?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총 _____ 회)

11. 작년 한 해 동안 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NIE 관련 학술행사나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총 _____ 회)

12. 최근 3년간 귀 교육청에서 NIE 관련 교재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_____ 1) 없음 _____ 2) 있음 (총 _____ 회)

13. NIE 관련 어린이(학생) 대상 행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NIE 결과물 발표대회 등)

____ 1) 없음 ____ 2) 있음 (연간 ____ 회)

14. NIE 관련 연수나 행사 운영과 관련된 홍보는 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기관홈페이지에 NIE 강좌 소개 및 지속적 업데이트

2) NIE 강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전단지 배포

3) 지역 언론사 등 외부 매체에 홍보

_____4) 기타()

5) 실시하지 않음

부록 1-4. 교육지원청 NIE 현황 조사 연구

- 전국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용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2 연구사업’ 일환으로 한국신문협회가 진행하는 본 조사의 목적은 전국 교육지원청별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귀 기관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오니 직접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주관기관 한국신문협회

연구진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최상희 경향신문사 편집부 차장

담당자 : 한국신문협회 이효정

전 화 : (02)733-2251~2

회신이메일 : presskorea2@gmail.com

2012년 *월 *일까지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NIE(신문활용교육) 관련 업무 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고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교육지원청에서 NIE 관련 업무가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___ 1) 1년 미만 ___ 2) 1년 이상~2년 미만
___ 3) 2년 이상~3년 미만 ___ 4) 3년 이상

2. 귀 교육지원청에서는 NIE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 ___ 1) 예 ___ 2) 아니오

3. NIE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적어 주세요.

부서명: _____

4. 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NIE 관련 배너 또는 자료가 로드되어 있습니까?

____ 1) 없음 ____ 2) 있음 (홈페이지 명칭 _____)

5. NIE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____ 1) 없음 ____ 2) 있음 (약 _____ 원)

6. NIE와 관련하여 교류나 협약을 맺은 기관이 있습니까? (예: 신문협회 등)

____ 1) 없음 ____ 2) 있음 (단체 또는 기관명 _____)

7. 단위학교에 NIE와 관련한 공문을 얼마나 보내십니까?

____ 1) 없음 ____ 2) 있음 (약 _____ 회_)

8. NIE와 관련하여 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연구학교가 있습니까?

____ 1) 없음 ____ 2) 있음 (총 _____ 개 학교)

9. NIE와 관련하여 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시범학교가 있습니까?

____ 1) 없음 ____ 2) 있음 (총 _____ 개 학교)

10. NIE와 관련하여 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되는 연수과정이 있습니까?

11. 작년 한 해 동안 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NIE 관련 학술행사나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12. 최근 3년간 귀 교육지원청에서 NIE 관련 교재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13. NIE 관련 어린이(학생) 대상 행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NIE 결과물 발표대회 등)

14. NIE 관련 연수나 행사 운영과 관련된 홍보는 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중복 응답 가능)

부록 1-5. 학교 NIE 현황 조사 연구

- NIE 담당교사용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2 연구사업’ 일환으로 한국신문협회가 진행하는 본 조사의 목적은 신문사별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귀 기관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오니 직접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주관기관 한국신문협회

연구진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최상희 경향신문사 편집부 차장

담당자 : 강은비

전 화 : (02)733-2251~2

회신이메일 : presskorea3@gmail.com

2012년 *월 *일까지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학교 NIE(신문활용교육)의 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고 귀 학교의 NIE 관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학교의 교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_____ 명

2. 귀 학교의 학년별 주당 수업 시수는 얼마나 됩니까?

1학년: 주당 _____ 시간

2학년: 주당 _____ 시간

3학년: 주당 _____ 시간

4학년: 주당 _____ 시간

5학년: 주당 _____ 시간

6학년: 주당 _____ 시간

3. 귀 학교에서 한번이라도 NIE 관련 연수를 받은 교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4. 귀 학교에서 NIE(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을 하는 교원이 있습니까?
_____ 1) 예(_____ 명) _____ 2) 아니오

5. 귀 학교는 종합일간지 신문을 받아 보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_____ 1) 종합일간지(전국지) 교직원용
_____ 2) 종합일간지(지방지) 교직원용
_____ 1) 종합일간지(전국지) 학생용
_____ 2) 종합일간지(지방지) 학생용

6. 귀 학교는 어린이 신문을 받아 보십니까? (초등학교만 해당)
_____ 1) 예(약 _____ 부) _____ 2) 아니오

7. NIE 담당 교원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_____ 1) 학교 업무분장: NIE 행정업무 처리
_____ 2) NIE 관련 특별활동 진행
_____ 3) 본교 소속 교원이 진행하는 NIE 방과 후 활동
_____ 4) 기타 (방법: _____)

8. 귀 학교에서는 방과 후 활동으로 NIE를 하고 있습니까?
_____ 1) 예(운영 학급 _____ 개) _____ 2) 아니오

9. 방과 후 NIE 활동의 강사는 누구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____ 1) 우리 학교 교사 ____ 2) 외부 강사

10. 교육과정상 NIE 수업은 주로 몇 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학년을 모두 골라 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____ 1) 1학년 ____ 2) 2학년
____ 3) 3학년 ____ 4) 4학년
____ 5) 5학년 ____ 6) 6학년

11. 학교교육과정상 NIE 수업에 몇 차시가 할당되어 있습니까?

_____ 차시

12. NIE 수업은 주로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____ 1) 수업 전 자습시간
____ 2) 교과시간
____ 3) 특활시간
____ 4) 재량시간
____ 5) 방과 후 활동
____ 6) 하지 않음

13. NIE 수업 시 신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____ 1) 학교에서 지원
____ 2) 구독을 원하는 학생을 수합하여 신청
____ 3) 학생 개별 준비(집에서 가져오기, 각자 구매해 오기)

- ___ 4) 담당 교사가 준비
___ 5) 기타 (방법: _____)

14. NIE 수업을 하는데 있어 할당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___ 1) 없음
___ 2) 있음 (약 _____ 원)

15. NIE 수업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지원받거나 충당됩니까? (_____)

- ___ 1) 없음
___ 2) 교육청
___ 3) 학교 자체 예산
___ 4) 학부모 및 수요자 부담
___ 5) NIE 관련 재단 또는 협회(예: 한국언론재단, 신문협회)
___ 6) 기타 (_____)

16. 학교 내에 NIE 수업을 위하여 조직된 교사 모임이 있습니까?

- ___ 1) 예 ___ 2) 아니오

17. 귀 학교에서는 NIE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18. 귀 학교에서는 NIE 활동에 대한 평가가 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중복 응답 가능)

- ____ 1) 강좌 운영 중에 수시로 수강생 의견 접수(온오프라인)
 ____ 2)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오프라인)
 ____ 3)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온라인)
 ____ 4) 기타 ()
 ____ 5) 하지 않음

19. 귀 학교에서 NIE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____ 1) 예산
 ____ 2) 관련 시설 및 공간
 ____ 3) 교사나 강사의 섭외
 ____ 4) NIE 프로그램 질 관리
 ____ 5) 기타 ()

**** 설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부록 1-6. 사회교육기관 NIE 현황 조사 연구

- 관련기관 업무담당자용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2 연구사업’ 일환으로 한국신문협회가 진행하는 본 조사의 목적은 사회교육기관별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귀 기관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오니 직접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주관기관 한국신문협회

연구진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최상희 경향신문사 편집부 차장

담당자 : 박새롬

전 화 : (02)733-2251~2

회신이메일 : presskorea4@gmail.com

2012년 *월 *일까지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NIE(신문활용교육) 강좌 운영 업무 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고 정확하게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NIE 관련 강좌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____ 1) NIE 지도사 자격시험 관련 교육프로그램

____ 2) 초·중·고 학생 대상 NIE 교육 프로그램

____ 3) 학부모 대상 NIE 부모교육 프로그램

____ 4) 교사 대상 NIE 연수 프로그램

____ 5) 기타 ()

2. 귀 기관에서 NIE 관련 강좌 운영을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3. 귀 기관에서 NIE 관련 강좌를 운영한 기간은 대략 얼마정도 되었나요?

4.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NIE강좌를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5. NIE 강좌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지원받거나 충당되니까?
(중복 응답 가능)

6. NIE 강좌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12. 기관 내에 NIE 관련 (교사/학생/지역주민) 연구회가 있습니까?

_____ 1) 예

___ 2) 아니요

13. 귀 기관에서 NIE 관련 간행물을 발행합니까?

_____ 1) 잡지형태

____ 2) 학습지 형태

___ 3) 기타()

___ 4) 발행하지 않는다

14. NIE 강좌 이외에 별도로 기관 주최의 NIE 관련 행사(세미나, 연수, 학술대회 등)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연간 운영된 횟수와 행사명과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_____ 1) 한 번도 없다

_____ 2) 연간 () 회

15.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NIE 강좌에 대한 평가는 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강좌 운영 중에 수시로 수강생 의견 접수(온오프라인)

2)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오프라인)

3)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온라인)

____ 4) 기타 ()

5)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부 록 2

- 2-1. 교육청 NIE 현황 조사 웹페이지
- 2-2. 교육지원청 NIE 현황 조사 웹페이지
- 2-3. 학교 NIE 현황 조사 웹페이지

부록 2-1. 교육청 NIE 현황 조사 웹페이지



본 설문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조사결과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될 뿐 개인적인 비밀은 보장 되오니 귀하가 평소 알고 계시기나 느끼신 바대로 응답 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제부사항

조사명 : 교육청 NIE 현황 조사 연구
설문시간 : 3~5분

주의사항

☞ 설문도중 '뒤로가기'버튼을 사용하시면 설문이 중단됩니다.
 ☞ 원활한 설문진행을 위해 브라우저에서 모든쿠키를 허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불성실한응답**은 모든 해당직립금(경품)혜택에서 제외되며, 조사참여제한 및 강제탈퇴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2 연구사업' 일환으로 한국신문협회가 진행하는 본 조사의 목적은 각 시.도 교육청별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귀 기관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오니 직접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주관기관 한국신문협회
 연구진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최상희 경향신문사 편집부 차장
 조사기관 메트릭스

다음문항으로



※다음은 NIE(신문화융교육) 관련 업무 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고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1. 귀 교육청에서 NIE 관련 업무가 시행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 1년 미만
 - ☐ 1년 이상~2년 미만
 - ☐ 2년 이상~3년 미만
 - ☐ 3년 이상

[▶ 다음문항으로](#)



- ☒ 문2. 귀 교육청에서는 NIE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 다음문항으로](#)



- ☒ 문3. NIE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부서명을 적어 주세요.
- 부서명:

[▶ 다음문항으로](#)



☒ **문4.** 귀 교육청 홈페이지에 NIE 관련 배너 또는 자료가 로드되어 있습니까?

- ☐ 없음
☐ 있음 (홈페이지 명칭)

[▶ 다음문항으로](#)



☒ **문5.** NIE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 없음
☐ 있음 (약 원)

[▶ 다음문항으로](#)



☒ **문6.** NIE와 관련하여 교류나 협약을 맺은 기관이 있습니까? (예: 신문협회 등)

- ☐ 없음
☐ 있음 (단체 또는 기관명)

[▶ 다음문항으로](#)



문7. 지역교육지원청에 NIE와 관련한 공문을 얼마나 보내십니까?

- ☐ 없음
☐ 있음 (약 회)

다음문항으로



문8. NIE와 관련하여 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구학교가 있습니까?

- ☐ 없음
☐ 있음 (총 개 학교)

다음문항으로



문9. NIE와 관련하여 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범학교가 있습니까?

- ☐ 없음
☐ 있음 (총 개 학교)

다음문항으로



■ 문10. NIE와 관련하여 귀 교육청에서 실시되는 연수과정이 있습니까?

- ☐ 없음
☐ 있음 (총 회)

▶ 다음문항으로



■ 문11. 작년 한해 동안 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NIE 관련 학습행사나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 ☐ 없음
☐ 있음 (총 회)

▶ 다음문항으로



■ 문12. 최근 3년간 귀 교육청에서 NIE 관련 교재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 ☐ 없음
☐ 있음 (총 회)

▶ 다음문항으로



문 13. NIE 관련 어린이(학생) 대상 행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NIE 결과를 발표대회 등)

- ☐ 없음
- ☐ 있음 (연간 회)

다음문항으로



문 14. NIE 관련 연수나 행사 운영과 관련된 홍보는 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기관홈페이지에 NIE 강좌 소개 및 지속적 업데이트
- ☐ NIE 강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전단지 배포
- ☐ 지역 언론사 등 외부 매체에 홍보
- ☐ 기타
- ☐ 실시하지 않음

다음문항으로



문 15. NIE와 관련하여 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사 연구회가 있습니까?

- ☐ 없음
- ☐ 있음 (총 개 정도)

다음문항으로



■ 문 16. NIE 관련 연수나 행사에 대한 평가는 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강좌 운영중에 수시로 수강생 의견 접수(온오프라인)
- ☐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오프라인)
- ☐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온라인)
- ☐ 기타
- ☐ 실시하지 않음

▶ 다음문항으로



■ 문 17. 귀 교육청에서 NIE 업무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예산 마련
- ☐ 관련 시설 및 공간 마련
- ☐ 강사 고용 및 관리
- ☐ NIE 프로그램 질 관리
-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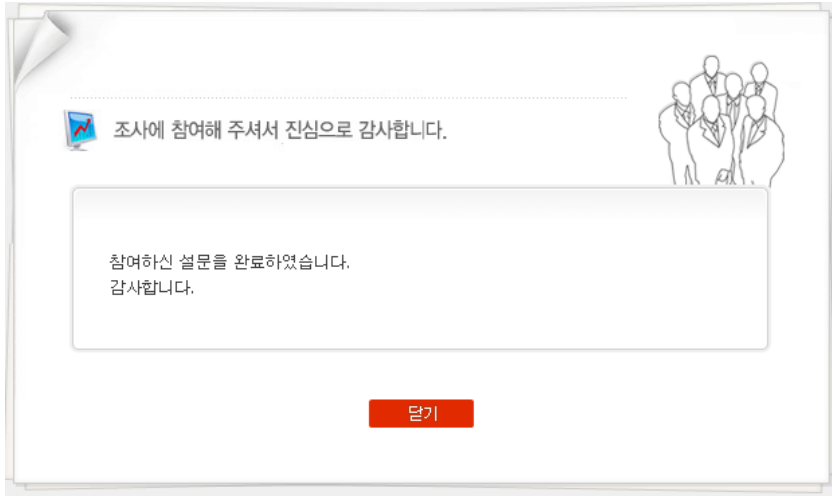
▶ 다음문항으로



■ 문 18. 설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자 기본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 다음문항으로



부록 2-2. 교육지원청 NIE 현황 조사 웹페이지



본 설문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조사결과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될 뿐
개인적인 비밀은 보장 되오니 귀하가 평소 알고 계시거나 느끼신 바대로
응답 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세부사항

조사명 : 교육지원청 NIE 현황 조사 연구
설문시간 : 3~5분

주의사항

☞ 설문도중 '뒤로가기'버튼을 사용하시면 설문이 중단됩니다.
 ☞ 원활한 설문진행을 위해 브라우저에서 모든쿠키를 허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불성실한응답은 모든 해당적립금(경품)혜택에서 제외되며, 조사참여제한 및
 강제탈퇴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2 연구사업' 일환으로 한국신문협회가 진행하는
본 조사의 목적은 각 시·도 교육청별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귀 기관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오니 직접 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주관기관 한국신문협회
 연구진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최상희 경향신문사 편집부 자장
 조사기관 메트릭스

다음문항으로



※다음은 NIE(신문화교육) 관련 업무 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고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 교육지원청에서 NIE 관련 업무가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 1년 미만
- ☐ 1년 이상 ~ 2년 미만
- ☐ 2년 이상 ~ 3년 미만
- ☐ 3년 이상

▶ 다음문항으로



문2. 귀 교육지원청에서는 NIE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 다음문항으로



문3. NIE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부서명을 적어 주세요.

부서명:

▶ 다음문항으로



문4. 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NIE 관련 배너 또는 자료가 로드되어 있습니까?

- ☐ 없음
☐ 있음 (홈페이지 명칭)

다음문항으로



문5. NIE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 없음
☐ 있음 (약 원)

다음문항으로



문6. NIE와 관련하여 교류나 협약을 맺은 기관이 있습니까? (예: 신문협회 등)

- ☐ 없음
☐ 있음 (단체 또는 기관명)

다음문항으로



■ 문7. 단위 학교에 NIE와 관련한 공문을 얼마나 보내십니까?

- ☐ 없음
☐ 있음 (약 회)

▶ 다음문항으로



■ 문8. NIE와 관련하여 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연구학교가 있습니까?

- ☐ 없음
☐ 있음 (총 개 학교)

▶ 다음문항으로



■ 문9. NIE와 관련하여 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시범학교가 있습니까?

- ☐ 없음
☐ 있음 (총 개 학교)

▶ 다음문항으로



■ 문10. NIE와 관련하여 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되는 연수과정은 있습니까?

- ☐ 없음
☐ 있음 (총 회)

▶ 다음문항으로



■ 문11. 작년 한해 동안 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NIE 관련 학술행사나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 ☐ 없음
☐ 있음 (총 회)

▶ 다음문항으로



■ 문12. 최근 3년간 귀 교육지원청에서 NIE 관련 교재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 ☐ 없음
☐ 있음 (총 회)

▶ 다음문항으로



■ **문13.** NIE 관련 어린이(학생) 대상 행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NIE 결과를 발표대회 등)

- ☐ 없음
☐ 있음 (연간 회)

▶ 다음문항으로



■ **문14.** NIE 관련 연수나 행사 운영과 관련된 홍보는 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기관홈페이지에 NIE 강좌 소개 및 지속적 업데이트
☐ NIE 강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전단지 배포
☐ 지역 언론사 등 외부 매체에 홍보
☐ 기타
☐ 실시하지 않음

▶ 다음문항으로



■ **문15.** NIE와 관련하여 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사 연구회가 있습니까?

- ☐ 없음
☐ 있음 (총 개 정도)

▶ 다음문항으로



☐ 문16. NIE 관련 연수나 행사에 대한 평가는 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강좌 운영중에 수시로 수강생 의견 접수(온오프라인)
☐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오프라인)
☐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온라인)
☐ 기타
☐ 실시하지 않음

▶ 다음문항으로



☐ 문17. 귀 교육지원청에서 NIE 업무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예산 마련
☐ 관련 시설 및 공간 마련
☐ 강사 고용 및 관리
☐ NIE 프로그램 질 관리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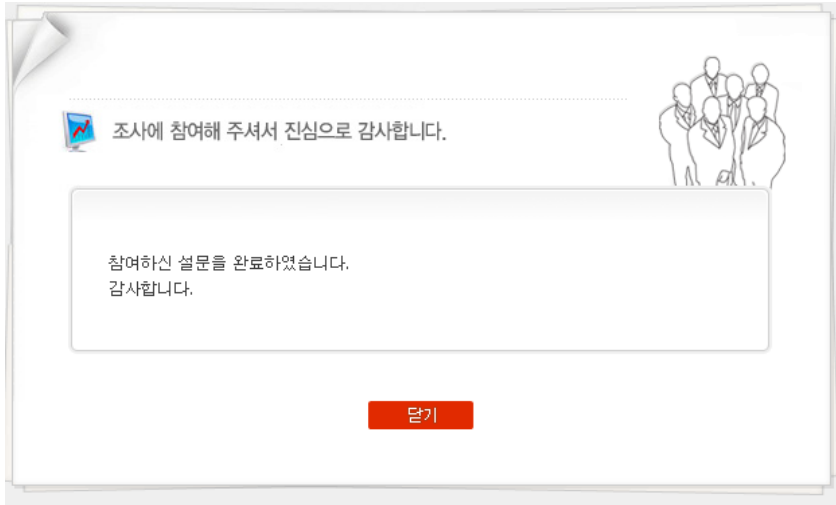
▶ 다음문항으로



☐ 문18. 설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자 기본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 다음문항으로



부록 2-3. 학교 NIE 현황 조사 웹페이지



본 설문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조사결과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될 뿐
개인적인 비밀은 보장 되오니 귀하가 평소 알고 계시기나 느끼신 바대로
응답 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세부사항

조사명 : 학교 NIE 현황 조사 연구
설문시간 : 3~5분

주의사항

☞ 설문도중 '뒤로가기'버튼을 사용하시면 설문이 중단됩니다.
 ☞ 원활한 설문진행을 위해 브라우저에서 모든쿠키를 허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불성실한응답**은 모든 해당적립금(경품)혜택에서 제외되며, 조사참여제한 및
 강제탈퇴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2 연구사업' 일환으로 한국신문협회가 진행하는
본 조사의 목적은 신문사별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귀 기관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오니 직접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주관기관 한국신문협회
 연구진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최상희 경향신문사 편집부 자장
 조사기관 메트릭스

다음문항으로



문0. 귀 학교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다음문항으로



※ 다음은 학교 NIE(신문활용교육)의 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고 귀 학교의 NIE 관련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 학교의 교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명

다음문항으로



문2. 귀 학교의 학년별 주당 수업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학년: 주당 시간	2학년: 주당 시간
3학년: 주당 시간	4학년: 주당 시간
5학년: 주당 시간	6학년: 주당 시간

다음문항으로



문3. 귀 학교에서 한번이라도 NIE 관련 연수를 받은 교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명

다음문항으로



문4. 귀 학교에서 NIE(신문 활용 교육) 수업을 하는 교원이 있습니까?

- ☐ 예 (명)
☐ 아니오

다음문항으로



문5. 귀 학교는 종합일간지 신문을 받아 보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 종합일간지(전국지) 교직원용
☐ 종합일간지(지방지) 교직원용
☐ 종합일간지(전국지) 학생용
☐ 종합일간지(지방지) 학생용

다음문항으로



문6. 귀 학교는 어린이 신문을 받아 보십니까? (초등학교만 해당)

- ☐ 예(약 부)
- ☐ 아니오

다음문항으로



문7. NIE 담당 교원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 ☐ 학교 업무분장: NIE 행정업무 처리
- ☐ NIE 관련 특별활동 진행
- ☐ 본교 소속 교원이 진행하는 NIE 방과후 활동
- ☐ 기타 (방법:)

다음문항으로



문8. 귀 학교에서는 방과후 활동으로 NIE를 하고 있습니까?

- ☐ 예(운영 학급 개)
- ☐ 아니오

다음문항으로



문9. 방과후 NIE 활동의 강사는 누구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우리 학교 교사
☐ 외부 강사

다음문항으로



문10. 교육과정상 NIE 수업은 주로 몇 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학년을 모두 골라 주세요. (중복 응답 가능)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다음문항으로



문11. 학교교육과정상 NIE 수업에 몇 차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차시

다음문항으로



■ 문 12. NIE 수업은 주로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 ☐ 수업 전 자습시간
- ☐ 교과시간
- ☐ 특활시간
- ☐ 재향시간
- ☐ 방과 후 활동
- ☐ 하지 않음

▶ 다음문항으로



■ 문 13. NIE 수업시 신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학교에서 지원
- ☐ 구독을 원하는 학생을 수합하여 신청
- ☐ 학생 개별 준비(집에서 가져오기, 각자 구매해 오기)
- ☐ 담당 교사가 준비
- ☐ 기타 (방법:)

▶ 다음문항으로



■ 문 14. NIE 수업을 하는데 있어 할당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 없음
- ☐ 있음 (약 원)

▶ 다음문항으로



문 15. NIE 수업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지원받거나 출당됩니까?

- ☐ 없음
- ☐ 교육청
- ☐ 학교 자체 예산
- ☐ 학부모 및 수요자 부담
- ☐ NIE 관련 재단 또는 협회(예: 한국언론재단, 신문협회)
- ☐ 기타

다음문항으로



문 16. 학교 내에 NIE 수업을 위하여 조직된 교사 모임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다음문항으로



문 17. 귀 학교에서는 NIE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문항으로



■ **문18.** 귀 학교에서는 NIE 활동에 대한 평가가 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강좌 운영중에 수시로 수강생 의견 접수(온오프라인)
☐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오프라인)
☐ 강좌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온라인)
☐ 기타
☐ 하지 않음

▶ 다음문항으로



■ **문19.** 귀 학교에서 NIE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예산
☐ 관련 시설 및 공간
☐ 교사나 강사의 섭외
☐ NIE 프로그램 질 관리
☐ 기타

▶ 다음문항으로



■ **문20.** 설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자 기본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 다음문항으로

